

한국민족운동사에서 본 고하 송진우  
- ‘독립’과 ‘자유민주국가 건설’을 이끈 선구자 -

김 형 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 이사장)

- 서론
I. 송진우와 중앙학교의 3.1운동
II. 송진우와 동아일보의 문화운동
III. 1924년 동아일보 개혁운동 전말
IV. 송진우와 해방 직후의 건국운동
- 결론

· 서론

고하 송진우는 구한말인 1890년 5월 8일 전라남도 담양에서 태어나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온몸으로 항거하면서 독립에의 집념을 불태우던 독립운동가다. 그리고 해방된 조국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국가 건설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1945년 12월 30일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의 자택에서 향년 55세의 나이에 피살되었다. 이런 그의 일생을 두고서 독립운동가, 교육자, 언론인, 정치가, 자유민주주의 수호자, 민족지도자 등의 다양한 호칭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송진우 개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sup>1)</sup> 그 이유는 그동안 학계의 연구 동향이 송진우 개인의 행적에 주목하기보다는 동아일보 계열로 집단화했기 때문이다.<sup>2)</sup> 여기서 동아일보 계열이란 동아일보·보성전문·경성방직

1) 현재까지 고하 송진우를 주제로 학계에 발표된 연구 성과는 아래 4편의 논문에 불과하다.  
심재욱, 「1920-30년대 초 고하 송진우의 사상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22집(한국민족운동 연구회, 1999.9)  
정진석, 「언론 경영인으로서의 고하 송진우」, 《동서언로》 제9호(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1997.12)  
김기주, 「고하 송진우의 민족교육사상과 교육활동」, 《전남사학》 제11집(전남사학회, 1997.12)  
윤덕영, 「고하 송진우의 생애와 활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현대사인물연구》 2, (백산서당, 1999).

2) 일제강점기 동아일보 계열의 민족운동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아래의 논문이 있다.  
김경택, 「1910-20년대 동아일보 주도층의 정치경제사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2)  
김명구, 「1920년대 국내 부르주아 민족운동 우파계열의 민족운동론 - 동아일보 주도층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20집(도서출판 한울, 2002. 봄), 163-196쪽.  
윤덕영, 「일제하·해방 직후 동아일보 계열의 민족운동과 국가건설노선」, (연세대 박사논문, 2010a)

등으로 모인 세력과 이들과 긴밀히 결합된 호남 출신의 정치세력을 지칭한다.<sup>3)</sup>

이런 이유로 그동안 송진우의 민족운동을 인촌 김성수(1891-1955)의 아류(亞流)로 폄훼하는 경향이 존재했다. 이에 대해 심재욱은 “동아일보 계열의 민족운동에 대한 연구가 동아일보의 ‘창설자’ 김성수, ‘공로자’ 송진우라고 정의하고 있는 동아일보사가 발간한 전기들에 기초한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지적했다.<sup>4)</sup> 이 같은 주장은 2010년 윤덕영에 의하여 다시 거론되었다. 윤덕영은 “김성수를 중심에 놓고, 송진우를 ‘김성수의 자장(磁場)하에 있는 인물’로 이해하는 경향이 일반적인데, 이것은 앞뒤가 서로 바뀐 인식이다”고<sup>5)</sup> 강조하였다. 동아일보 계열이 정치적으로 형성된 1920년대 초반 이래 1945년 말까지 이들 세력의 지도자는 송진우고, 김성수는 일제 강점기는 물론 해방 후에도 정치활동을 자제하다가, 1945년 12월 송진우가 암살당한 후에야 어쩔 수 없이 정치활동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기 때문이다.<sup>6)</sup>

한편 두 사람과 생전에 돈독한 우의를 가졌던 동시대인들도 송진우가 앞에서 일을 실행하면 김성수가 배후에서 지원하는 형태였다고 증언한다. 두 사람의 우정을 주로 부부 관계에 비유하였는데, 전통적인 가정으로 보면 고하가 아버지 역할이고, 인촌은 어머니 역할이었다.<sup>7)</sup> 그 중에서도 보성전문학교 교수를 지내며 두 사람을 가까이서 교제하다가 후일 고려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유진오(1907-1987)는 이렇게 회고하였다.

인촌은 고하에게 신문사의 일을 일임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 세상이 다 알듯이 인촌과 고하 두 분은 친한 친구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둘도 없는 동지로서 일심동체가 되다시피 하여 일생을 보낸 분들인데, 매사에 있어 인촌은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자금을 대고 하는 참모의 일을 맡았다면, 고하는 밖에서 장병을 지휘하면서 전투에 종사하는 사령관의 일을 보신 셈이다.<sup>8)</sup>

당시 언론에서는 동아일보를 기반으로 종횡무진 활약하는 송진우를 두고 ‘조선을

---

\_\_\_\_\_, 「1920년대 전반 민족주의세력의 민족운동 방향 모색과 그 성격 : 동아일보 주도 세력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98호(국사편찬위원회, 2010b), 343-390쪽.

\_\_\_\_\_, 「1920년대 중반 민족주의 세력의 정세인식과 합법적 정치운동의 전망 : 동아일보 주도세력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53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10c), 73-107쪽.

\_\_\_\_\_, 「1920년대 전반 동아일보 계열의 정치운동 구상과 '민족적 중심세력'론」, 《역사문제연구》 24 (역사문제연구소, 2010d), 9-49쪽.

\_\_\_\_\_, 「1930년대 동아일보 계열의 정세인식 변화와 배경 - 체제 비판에서 체제 굴종으로」, 《사학연구》 108호(국사편찬위원회, 2012.2), 197-261쪽.

\_\_\_\_\_, 《세계와 식민지 조선의 민족운동 - 한국자유주의의 형성, 송진우와 동아일보》, (혜안, 2023)

3) 윤덕영, 앞의 논문(2010a), 19-20쪽.

4) 심재욱, 앞의 논문, 190쪽.

5) 윤덕영, 앞의 논문(2012), 197쪽.

6) 이승렬, 『근대 시민의 형성과 대한민국』, (그물, 2022), 589쪽 ; 이에 이승렬은 “한민당에서 송진우가 드러난 중심이었다면, 김성수는 그 그늘에 가려진 또 다른 중심이었다.”고 정의한다.

7) 이광수, 「김성수론」, 《동광》 제25호(1931.9), 8쪽 ; 유광열, 「신문 독재자 송진우론」, 《삼천리》 제4권 9호(1932.9), 16쪽. ; 한편 채만식은 두 사람의 성품을 “김 씨는 군자적으로 암전하면서 살림꾼인데 반해, 송 씨는 외교적이며 수호지(水滸志)식이다.”라고 비교했다. - 백릉,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 씨 면영」, 《해성》, 1권 1호(1931.3), 112쪽.

8) 유진오, 「仁과 知의 指導者 仁村 先生 七週忌를 맞이하여」, <동아일보> 1962.2.18.(2).

대표하는 정객(政客)'이라고 불렀다.<sup>9)</sup> 동아일보 계열의 민족운동이 송진우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었다.

송진우의 민족운동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그간의 연구 성과가 전기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채,<sup>10)</sup>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고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탓이다. 최초의 송진우 전기는 1965년 동아일보사에서 간행이 된 『고하 송진우 선생 전』이다.<sup>11)</sup> 이 책은 동 시대에 발간된 전기가 대체로 그러하듯이 구전을 토대로 서술된 부분이 적지 않다. 송진우의 경우 1990년 동아일보사에서 간행한 김학준의 『고하 송진우 평전』과<sup>12)</sup> 2022년에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에서 펴낸 『독립을 향한 집념』을<sup>13)</sup> 거치면서 처음의 오류가 상당 부분 수정, 보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인에 대한 선양을 목적으로 개인의 행적에 치중해서 서술하는 '전기' 특성상, 보편적인 역사적 상황과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대표적인 사례가 송진우가 중심이 된 중앙학교의 3.1운동으로 그 실체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학계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었다.<sup>14)</sup> 필자가 오늘의 발표 주제를 「한국민족운동사에서 본 고하 송진우」라고 한 이유도 기존의 <고하 전기>에 기초한 연역적인 방법으로는 역사적 실체를 규명하는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I. 송진우와 중앙학교의 3.1운동

### 1) 3.1운동의 발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3.1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월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알려진 1918년 하반기부터 국내외 8군데에서 거의 동시에 준비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국외에서는 중국 상하이의 신한청년당, 간도와 연해주 일대의 항일무장세력, 일본의 도쿄 유학생, 미주 한인사회, 국내에서는 서울의 중앙학교 측과 천도교, YMCA를 중심한 청년·학생층, 평안도 지역의 기독교 세력이다. 이들은 월슨(1856-1924, Woodrow Wilson)의 민족자결주의가 발표되자, 이 기회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이용하여 독립을 쟁취하려 한 것이다.

이 가운데 3.1운동이 발발하는데 진원지가 된 곳은 신한청년당이었다. 이들은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1881-1950)을 대표로 파견함으로써, 국내외 한국인들이 파리강화회의와 전후체제에 대한 희망과 염원을 가질 수 있게 했다. 또 국내·일본·만주·연해주 등지에 당원들을 파견해서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하는 대표를 후원하기 위한 선전·모금

9) 황석우, 「나의 팔인관(八人觀)」, 《삼천리》 제4권 4호(1932.4), 29쪽.

10) 심지연, 「고하 송진우」, 한국사학회 편, 『한국현대인물론』, (을유문화사, 1987), 91쪽.

11) 고하송진우선생전기편찬위원회 편, 『고하 송진우 선생 전』, (동아일보사, 1965)

12) 김학준, 『고하 송진우 평전 : 민족민주주의 언론인·정치가의 생애』, (동아일보사, 1990)

13)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독립을 향한 집념』, (Safety Play Book, 2022)

14) 신용하는 3.1운동이 태동하고 단일화하는 과정을 일곱 군데의 흐름으로 설명하면서 아예 중앙학교의 역할을 제외하였다. : 신용하,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사회사』, (서울대 출판부, 2001), 171-180쪽.

활동을 벌임으로써 국내외에서 3·1운동이 촉발될 수 있도록 했다.<sup>15)</sup>

3·1운동이 태동하는 단계에서 진원지가 상하이의 신한청년당이라면, 그것을 하나로 연결하여 국내 7대 도시에서 동시에 발발하도록 한 단일화 단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 중앙학교 세력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학교의 3·1운동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sup>16)</sup> 그 이유는 학계에서 이미 이설로 판정이 된 ‘이승만의 3·1운동 기획 설’이 중앙학교와 연결되면서, “3·1운동은 사실상 중앙학교에서 주동한 동시에 중앙학교는 바로 3·1운동의 책임지였다”<sup>17)</sup> 주장이 신뢰를 잃은 까닭이다.

#### (1) 이승만의 3·1운동 기획 설

이 때문에 중앙학교의 3·1운동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승만의 3·1운동 기획 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동안 소수의 이승만 연구자와 언론인을 중심으로 제기된 주장의 출발점이 <고하 전기>이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고하의 일상생활에 감돌던 망국의 우울은 1918년 10월에 접어들며 점점 걷히기 시작했다. 그것은 민족 독립의 서광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㉞설산 장덕수가 중국 상해에서 밀명을 띠고 들어온 것이다. 중국에 망명중인 망명객들은 파리에서 열릴 강화회의에 한민족 대표로 김규식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으니, 국내에서도 이 구국운동에 호응하여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협조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고하와 인촌은 설산과 함께 필요한 자금과 절차를 꾸미고 있는데, 때마침 ㉟12월에 우남 이승만이 보낸 밀사 모가 밀서를 전해왔다.

이와 전후하여 고하를 중심한 국내 세력은 고하가 묵고 있는 중앙학교 숙직실을 총 본부로 삼고 활동을 개시했다. 고하는 설산에게 국내의 일은 전부 자기네에게 맡겨주길 간청했다. 그 길로 설산은 동경으로 건너갔다. 동경 유학생들과 연락하기 위해서였다. 우남의 밀사도 미국으로 떠나보내면서 “국내 일은 우리가 맡아할 테니, 다시 정세가 달라지는 대로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하고 답장을 했다.<sup>18)</sup>

위의 내용은 정리하면, ㉞1918년 10월 장덕수(1894-1947)가 상해에서 밀명을 띠고 입국하여 송진우, 김성수와 거사를 논의 중이었는데, ㉟12월이 되자 미국에서 이승만(1875-1965)이 밀사를 보냈다. 이를 계기로 장덕수는 국내의 일을 송진우에게 맡기고 동경으로 건너가서 2.8독립선언 거사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주장은 사건의 전후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당시 상해에 머무르던 장덕수는 1919년 1월 27일 상해를 출발하여 며칠 뒤 동경에 잠입했다가 2.8독립선언을 목격한 후에 2월 17일 동경을 출발하여 20일에야 서울에 도착하게 된다.<sup>19)</sup> 바로 이 점에서 장덕수가 1918년 10월에 밀명을 띠고 서울을 방문해서 체류했다는 것이나 그 이후의

15) 정병준, 「중국 관내 신한청년당과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제65집, (2019.1), 6쪽.

16) 최형련, 「3·1운동과 중앙학교」, 『3·1운동50주년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69), 313쪽. ; 중앙학교의 3·1운동과 관련하여 학계에 소개된 것은 현재까지 이 글이 유일하다.

17) 위의 글, 313쪽.

18) 앞의 『고하 송진우 선생 전』, 70-71쪽.

19) 이경남, 『설산 장덕수』, (동아일보사, 1981), 102-105쪽.

행적은 모두가 오류인 것이다.

이승만과의 관련성도 정확하지 않다. 시기도 부정확하거나와 이승만이 보낸 밀사의 이름도 모(某)라고 표기했을 따름이다. 따라서 중앙학교의 3.1운동은 신뢰를 얻기가 어려웠다. 내용 중에 자료 출처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미확인된 누군가로부터 들은 구전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하 전기>를 펴낸 동아일보는 20년이 지난 후 <인촌 전기>를 발간할 때는 그 내용을 이렇게 수록하였다.

1918년 12월 어느 날. 미국 워싱턴에서 재미 동포들과 구국운동을 하는 이승만이 밀사를 보내왔다. 밀사는 이런 내용의 밀서를 휴대하고 있었다. “월슨 대통령의 민족자결론 원칙이 정식으로 제출되는 이번 파리강화회의를 이용하여 한민족의 노예생활을 호소하고 자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미국의 동지들도 구국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니 국내에서도 이에 호응해주기 바란다.” 12월이면 1차 대전이 막 끝난 시기, 다급해진 이승만의 재촉이었다.<sup>20)</sup>

이처럼 동아일보가 간행한 고하와 인촌의 두 전기에는 이승만의 3.1운동 기획설만 소개되었지, 정작 이승만의 밀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 (2) 여운홍의 이승만 밀사 설

1995년 6월 중앙일보가 ‘이화장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승만과 대한민국 탄생」이란 기획기사로 보도하였다. 이때 3.1운동을 기획한 이승만의 밀사가 누군지가 밝혀졌다.

1918년 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이승만은 호놀룰루의 한인기독학원 일에 주력하고 있었다. 그는 세계대전을 마감하는 강화회의에서 약소국의 독립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그는 승전국 미국 대통령이며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한 은사 월슨이 강화회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리라 판단하고 이 국제회의에 몸소 참석, 월슨을 설득해서 한국 독립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마음먹었다.

그는 자기 계획을 1918년 10월 하와이를 방문한 여운홍과 미국 선교사 샤록스를 통해서 국내 민족 지도자들(송진우, 함태영, 양전백)에게 알림으로써 그들이 적시에 자기의 외교에 호응하는 대중운동을 펼쳐줄 것을 기대했다.<sup>21)</sup>

만약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이승만의 밀사는 여운홍(1891-1973)이다. 이런 내용은 이듬 해 중앙일보에서 나온 유명익의 《이승만의 삶과 꿈》에도 수록되었다.<sup>22)</sup> 그러나 약간의 내용상 차이점도 발견된다. <이화장 자료>에는 ‘밀사’와 ‘밀서’란 단어가 없다. 이승만이 여운홍을 하와이로 불러 밀사로 보낸 것이 아니라, 여운홍 일행이 귀국하는 길에 이승만을 예방했다가 전해들은 메시지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요한 것은 과연 이승만의 메시지가 국내에 어떻게 전달되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이다.

20) 권오기 편, 『인촌 김성수의 사상과 일화』, (동아일보사, 1985), 121쪽.

21) 중앙일보, 1995년 6월 8일자. 「이승만과 대한민국 탄생」 제16회 "이승만과 3.1운동"

22) 유명익, 『이승만의 삶과 꿈 ; 대통령이 되기까지』, (중앙일보사, 1996), 134쪽.

2013년 KBS는 이승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여운홍의 행적을 추적했다. 거기에 따르면 미국 유학 중이던 여운홍은 1918년 가을 스페인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11월에 퇴원하자 곧장 프린스턴신학원을 중퇴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12월에 하와이에 들러 이승만을 만나 밀서를 받고 일본을 경유하던 차에 2월 초 도쿄에서 2.8독립선언 소식을 듣고 이승만의 동향을 전했다. 이렇게 해서 여운홍이 서울에 도착한 것은 2월 18일이다.<sup>23)</sup> 그런데 이 자료에 근거해도 중앙학교 인사들이 여운홍으로부터 이승만의 밀서를 전달받아서 3.1운동을 거사했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는다.

### (3) 여운홍의 파리강화회의 참가기

그런데 필자는 동아·중앙 양측의 주장은 물론, 위의 KBS 자료까지 모두 허구임을 입증할 결정적 자료를 발견했다. 이 사건의 진위를 가릴 핵심 인물인 여운홍이 당시 파리 여정을 기록한 「파리 강화회의에 갔다가」라는 제목의 여행기다. 1930년 11월 1일자 <삼천리> 제10호에 실린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

실로 1918년 11월 11일이다. 오후 2시쯤이나 되었을까. 휴전조약이 성립된 것이다. 나는 그 수일 후에 워싱턴의 백악관을 찾아 윌슨 대통령의 비서인 글라스 씨를 통해 여러 가지 나의 결의를 전했다. 나는 백악관을 나온 후 곧장 뉴욕으로 가서 헐버트 씨를 만났다. 그는 헤이그밀사사건 때 많은 애를 쓴 분이다. 내가 찾아온 뜻을 밝히고 이 길로 파리강화회의에 가겠다고 하니, “그냥 빈손으로 가면 소용이 없으니 본국으로 돌아가서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파리로 오라”고 했다.

나는 다시 로스엔젤리스의 안창호 씨를 찾아가서 여비를 달라고 요청하니, 민찬호·정한경·이승만·이대위 씨 등이 그 자리에서 회의를 열고 300달러를 지원해주었다. 나는 그 돈으로 천신만고 끝에 여권을 받고 배편을 이용하여 2월 1일 일본 동경에 도착하였다. 동경에서는 최팔룡 군을 만나 준비 상황을 듣고 뜻을 같이 하면서 서울로 들어오니 2월 18일이었다.

이(상재), 함(태영), 최(남선) 등을 만나니, 국내 일은 벌써 준비가 다 되었으니 어서 속히 갈 곳으로 가라고 하였다. 나는 2월 26일에 누구도 모르게 서울을 떠나 (중국의) 안동에서 기차로 상해까지 무사히 갔다. 거기서 5월 초순에 본래 목적지이던 유럽의 파리로 갔다.<sup>24)</sup>

여운홍의 여행기에서 알게 된 사실은 그가 귀국길에 하와이에 들러 이승만을 만난 것이 아니라, 로스엔젤리스에 안창호를 만나러 갔다가 그곳에서 이승만을 만났다. 또 도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2.8독립선언의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서울에 왔을 때도 3.1운동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2월 26일 서울을 빠져나간 후 중국 안동에서 기차로 상하이로 이동하였고, 5월 초순에 상하이를 떠나 6월 20일 파리에 도착했다. 따라서 여운홍의 행적은 이승만의 밀서를 비롯하여 3.1운동 발발과는 어떤 관련도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여운홍의 ‘파리강화회의 참석기’는 그가 1949년 10월에 헐버트(Homer Hulbert,

23) 김정수, 『초대 대통령 이승만 1 - 개화와 독립』, (청미디어, 2013), 268쪽.

24) 여운홍, 「파리강화회의에 갔다가」, 《삼천리》 제10호(1930.11.1), 2-6쪽. ; ( )은 필자의 주석임.

1863-1949)의 부음을 듣고 쓴 「헨버트 박사와 나」의 내용과도 완전히 일치한다.<sup>25)</sup> 이 글에도 여운홍이 이승만의 밀사였다는 흔적은 없다. 더욱이 여운홍이 귀국 길에 1919년 1월 11일자로 파리강화회의에 ‘국민회 내지 특파원’ 자격으로 파견되었다는 신한민보 기사를 고려하면,<sup>26)</sup> 1918년 12월 하와이에서 이승만의 밀서를 받고 일본을 거쳐 귀국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관계가 다르다. 그런데 김학준과 유영익 등이 ‘이승만 밀사 설’을 여과 없이 인용함으로써,<sup>27)</sup> ‘중앙학교의 3.1운동’과 ‘고하의 민족운동’을 오히려 불신하게 만든 결과를 낳았다.

## 2) 3.1운동의 책임지 중앙학교

중앙학교의 3.1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중앙학교의 3.1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교장 송진우, 교사 현상윤(1893-1950), 교주 김성수 세 사람의 증언이 가장 중요하다.

### (1) 현상윤의 3.1운동 회상기

그동안 송진우와 김성수는 주변인들의 구전을 토대로 만든 전기만 존재할 뿐인데 비해, ‘민족대표 48인’의 1인으로 고려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낸 현상윤은 <신천지> 1946년 3월호에 「3.1운동의 회상」과 1950년 3월호에 「3.1운동 발발의 개략」을 각기 발표하여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증언하였다.<sup>28)</sup> 현상윤의 증언을 살펴보자.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민족자결을 포함한 14개 조의 원칙을 발표한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 원칙을 적용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때 나는 중앙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중앙학교는 배일본자의 소굴이어서 경성은 물론이요, 동경, 상해, 미주에서 오는 동지들의 연락과 내왕이 많았다. 우리들은 독립운동을 실현하려면 천도교를 움직이는 것이 가장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천도교가 경영하던 보성학교 졸업생인 내가 나서서 보성중학교장 최린과 송진우의 만남을 주선했다. 이후부터 송진우와 내가 최린의 재동 집을 거의 매일 밤 방문했다.<sup>29)</sup>

현상윤의 글을 보면 중앙학교의 3.1운동은 명확해진다.<sup>30)</sup> 1918년 11월 제1차 세계

25) 여운홍, 「헨버트 박사와 나」, 《민성》, (1949.10), 60-61쪽.

26) “국민회 내지 특파원 여운홍 씨의 활동”, <신한민보> 1919.8.16.

27) 김학준, 앞의 책, 98쪽 및 유영익, 앞의 책, 232쪽. : 유영익이 밝힌 <이화장 소장 자료>는 1986년 삼일절에 허경신 3.1동지회 부회장이 행한 경축사의 옥필 원고이다. 사실상 사료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것인데 과장 보도되었다. 이 때문에 유영익은 <고하 전기>와 <인촌 전기>를 출처로 병기하고 있다. ‘이승만 3.1운동 기획 설’은 추종자들의 영웅사관이 만들어낸 허구임을 알 수가 있다.

28) 현상윤의 「3.1운동 발발의 개략」은 《사상계》 11-3호(1963.3)에도 수록되었다. ; 이 글은 1963년에 현상윤의 가족이 미발표 원고로 알고 《사상계》에 게재했는데, 현상윤이 납북되기 전인 1950년 3월에 <신천지>에 발표한 원고와 동일한 내용이다. 《사상계》에 재발표하면서 약간의 수정이 가해졌다.

29) 현상윤, 「3.1운동의 회상」, 《신천지》 1-2(1946.3), 26-27쪽.

30) 송진우가 생전에 위당 정인보와 호암 문일평으로부터 여러 차례 3.1운동의 진실 된 내막과 고하의 역할에 대해 증언해 달라고 요청받았을 때, 지금 자기가 입을 열면 그 명예에 손상을 입을 인사들이 많으니 후일 은퇴한 뒤에 밝히겠다고 대답했다.(김학준, 앞의 책, 270쪽) 그런 점에서 송진우와 함께

대전이 끝나고, 전후의 세계 질서를 논의할 강화회의가 1919년 1월 18일 파리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에 송진우 현상윤 김성수 세 사람은 수시로 모여 독립운동에 관해 상의하던 중 구체적인 거사 계획으로 최린(1878-1958)을 통해 천도교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다. 《사상계》에 수록된 다른 「3.1운동 발발의 개략」에는 천도교와의 교섭 과정이 보다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나는 천도교에서 경영하는 보성학교를 졸업한 관계로 동 교장 최린 씨를 가깝게 종용하던 터요. 수차 최 씨를 찾아 천도교의 의견을 타진한 즉 자못 용력할 만하고, 최 씨의 의견도 반대하는 기색은 적음으로 그때부터 송 씨와 동반하여 최 씨를 찾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1918년 11월부터 시작하여 이후 수개월 동안 의견 교환과 모의를 거듭한 결과 거사를 추진기로 하고, 일변 동지를 구하는 의미로 최남선 씨의 참가를 구하는 동시에, 타 일변으로는 천도교 중진 오세창·권동진 양 씨와 연락하여 손병희 씨의 궤기를 종용하고 있었다.<sup>31)</sup>

이렇게 1918년 11월 초부터 중앙학교와 천도교 간의 논의되어지던 2019년 1월 초 동경 유학생 송계백(1896-1920)이 중앙학교를 찾아와서 2.8독립선언서 초고를 제시한 것을 계기로 하여, 최남선(1890-1957)이 기미독립선언서를 작성하는 것과 천도교의 참여가 확정되었다. 현상윤은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리하여 1919년 1월 상순경이라고 기억하는데 하루는 아침에 일본 유학생 송계백 군이 장차 일본에서 발표하려는 일본 유학생들의 독립요구선언서 초고(이광수 작)를 휴대하고서 비밀리에 입경하여 나에게 그것을 제시했다. 그리하여 송진우 씨와 나는 그날 오전에 마침 중앙학교를 내방했던 최남선 씨에게 그것을 보이고, 금후로 국내의 독립운동에 참가할 것을 권하니 최 씨도 이것을 승낙하고 또한 국내의 선언서는 자기가 짓겠다고 쾌락하였다.

그때 나는 다시 그 초고를 가지고 최린 씨에게 제시하였다. 그리한즉 최 씨는 또 권(동진)·오(세창) 양씨에게 보이고, 또 권·오·최 삼씨는 그것을 가지고 손병희 씨에게 제시했다. 그리한즉 손 씨 왈, “어린아(兒) 들이 저렇게 운동을 한다하니 우리로서 어찌 앉아서 보기만 할 수 있느냐”하여 천도교의 궤기를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날 저녁에 최린 송진우 최남선과 나는 제동의 최린 씨 집 내실에 비밀히 회합했는데, 이날 저녁에 4인은 기뻐 축배를 들면서 밤 깊도록 독립운동의 실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획과 방안을 토의하였다.

수일 후에 평안도의 고향(평남 평원)에 내려갔던 송계백 군이 다시 내방하였으므로 일본 유학생들의 독립선언문 인쇄에 소용되는 국한문활자 수천 자를 최남선 씨에게 부탁해 최 씨 경영이던 신문관에서 구득하고, 또 운동비 3천원을 정노식 군에게 얻어서 송 군에게 주어 일본으로 가져가게 하였다.<sup>32)</sup>

이상에서 국내에서 3.1운동이 처음 발원하게 된 전모를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다. 더욱이 정노식(1891-1965)으로부터 3천원을 차용하여 송계백에게 2.8독립선언 거사 자금으로 주었다는 증언은 다음에 언급할 김성수가 2월 11일 이승훈(1864-1930)에게

동고동락하면서 3.1운동의 단일화 과정에 역할을 분담한 현상윤의 증언은 매우 중요하다.

31) 현상윤, 《사상계》 11-3호(1963.3), 45쪽.

32) 현상윤, 「3.1운동 발발의 개략」, 《신천지》 5-3(1950.3), 47-50쪽.

서울과 평양을 왕래할 활동비로 1천원을 지원했다는 증언과 함께 이제까지 연구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운동비에 관한 대목이다.

### (2) 최린의 <자서>에 실린 증언

한편 천도교 측의 협상 당사자이던 최린이 쓴 <자서>의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나타난다. 최린의 증언을 살펴보자.

이때 마침 동경 유학생 중에서 조도전대학생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일으켜보자는 의견이 일치되어 그들의 동지 중 송계백 군이 동경에서 파견되었는데, 송 군은 내가 보성고등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졸업생으로 내가 특히 사랑하는 학생이었다. 오랜 일이라 날자는 알 수 없으나, 어느 날 이른 아침인 듯도 하고 밤인 듯도 하다. 이외에 재동 68번지 나의 집으로 찾아와서 동경 유학생들의 시국에 대한 동향과 그 결의 사항을 자세히 말한 후 자기 모자 속을 뜯고 거기서 끄집어내어 나를 주었으므로 받아서 본즉 독립선언문이었다.(중략)

동년 2월 상순경 최남선·송진우·현상윤과 재동 자택에서 극비밀리에 수차 회합하고 운동에 대한 계획을 토의하였는데, 독립운동은 대중화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의하여 무엇보다 먼저 민중의 신망을 가진 인물들을 간판으로 하지 않으면 대중 동원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이에 해당하는 인물을 각 방면으로 물색해 보았으나 만족할만한 인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sup>33)</sup>

두 사람의 증언을 비교해보면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현상윤은 1918년 11월부터 양 측의 모의가 진행된 것으로 증언한데 비해, 최린은 1919년 1월 송계백이 찾아온 이후부터로 증언했다. 전반적인 내용은 현상윤의 증언이 보다 정확하고 논리적이다. 그렇지만 그 동안 연구자들은 천도교 측 자료를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고, 3.1운동에 관한 논의도 동경유학생 송계백이 내방한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것은 그동안 학계의 3.1운동 연구가 주로 공판 기록에 의존한 탓이다.

### (3) 3.1운동의 단일화 과정

송계백이 다녀 간 이후의 상황은 양측의 자료와 공판기록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구한국 고관들과의 교섭에 실패한 이들은 평안도 지역의 기독교 세력과 연결을 도모했다. 2월 8일 오산학교 졸업생 김도태(1891-1956)를 평안북도 정주의 이승훈에게 보내 급히 상경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승훈은 11일 아침에 상경하여 계동 132번지 김사용의 집(김성수의 별채)에서 송진우·현상윤·김성수 3인을 만났다.<sup>34)</sup> 현상윤은 그날의 현장을 이렇게 설명한다.

송진우와 나, 그리고 김성수는 이승훈을 만나 그동안 재경 동지의 계획과 천도교의 동향을 설명하고 기독교 측의 참가와 동지 규합의 일을 요청하니, 이승훈은 선우 혁이 상해로부터 관서지방에 잠입하여, 김규식을 파리로 보내는데 재정적으로 협력할 것과 또 국내 동포도 적극적으로 독립운동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때문에 관서지방의 기독교인들도 대단히

33) 최린, 「자서」, 이병헌, 『3.1운동 비사』, (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47-48쪽.

34) 위의 <이승훈 취조서>, 349쪽 - 이승훈은 계동 김사용의 집에서 송진우만 만난 것으로 증언하였다.

동요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승훈은 즉석에서 우리의 요구를 쾌히 수락하고, 김성수로부터 1천원의 운동비를 받아가지고 그날 밤 차로 관서지방을 향해 출발했다.<sup>35)</sup>

이승훈은 곧바로 평안도 일대를 순행하면서 장로교의 길선주(1869-1935) 양전백(1869-1933) 이명룡(1873-1956) 유여대(1878-1937) 김병조(1877-?) 등과 감리교의 신흥식(1872-1939)을 만나 민족대표로 참여를 승낙 받은 후 그들의 인장을 휴대하고 16일 밤차로 상경했다. 이처럼 이승훈이 불과 사흘 만에 민족대표로 6명을 규합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1911년 105인 사건부터 독립운동에 뜻을 함께 한 동지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sup>36)</sup>

이날부터 이승훈은 소격동의 사삿집에 머무르며 매일 같이 송진우와 회동을 갖고 거사계획을 논의했다. 이승훈은 YWCA와 감리교계 인사들을 규합하고, 일시 균열이 생겼던 천도교 측과의 연계도 최린과 협력하며 원만하게 성사시켰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후 천도교 15인, 기독교 16인, 불교 2인 등으로 민족대표 33인이 확정되었다.<sup>37)</sup>

이때 송진우 현상윤 최남선 함태영(1872-1964) 정광조(1833-1953) 등 5인은 잔류 간부로 정해서 민족대표들이 체포된 후 제반 임무를 담당키로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 이날 송진우는 김성수에게 고향인 전북 고창의 줄포로 내려가서 3.1운동의 현장에서 도피하도록 설득했다. 거사를 이틀 앞둔 27일의 일로 중앙학교를 지키고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구상에서였다.

한편 송진우와 현상윤은 독립운동은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 문서운동만으로는 그 효과가 크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대규모 대중적인 시위를 동시에 펼칠 것을 계획했다. 이 일을 위해 보성전문학교 졸업생 주익을 통해서 전문학교 학생 가운데 시위운동을 이끌 중핵체를 구성하고 대기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도 박희도(1889-1952)와 이갑성(1889-1981)이 연희전문학교 김원벽(1894-1928), 보성전문학교 강기덕(1889-?), 경성의전 한위건(1896-1937) 등 3인을 앞세워서 학생들을 규합하던 중이었다. 이에 두 세력이 연합하기로 합의하고 28일 인사동 소재 승동예배당에 시내 중등학교와 남녀 전문학교 대표자 10여명을 소집하고 시위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sup>38)</sup> 이로 인해 3.1운동이 전국적인 대중운동으로 확산되는데 학생층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 3) 송진우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

#### (1) '민족대표 48인'으로서의 송진우

3.1운동이 일어나자 송진우는 체포되어 총독부 경무총감부가 있던 예장동 근처의

35) 현상윤, 앞의 글(1950.3), 51쪽.

36) 김형석, 「남강 이승훈 연구 - 3.1운동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46·47·48합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5.6.), 642-646쪽.

37) 위의 글, 646-651쪽.

38) 현상윤, 앞의 글(1963.3), 48쪽.

왜성대에서 심문을 받았다. 그가 언제 체포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3월 3일의 서울역 앞 2차 시위에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나왔다가 세브란스의전 건물로 피신한 것을 목격했다는 스코필드(Frank William Schofield, 石虎弼, 1889-1970)의 증언에 비추어 3월 10일경으로 보인다.<sup>39)</sup> 그는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3.1운동을 거사하게 된 실상을 밝히지 않았다. 제2, 제3의 독립운동을 계획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였다.<sup>40)</sup> 당시의 상황에 대해 김도태는 이렇게 회고했다.

방마다 앞에서 창살모양으로 나무를 세웠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있어 내가 들어가는 것을 내다보게 되었다. 처음에 고하 송진우가 “너도 기어이 잡혀 왔구나.” 하고 소리를 지른다. 옆방에 있던 월남 이상재(1850-1927) 노인이 “흥. 젊은 사람들은 대개 다 잡혀 오는구먼.” 하는 소리가 들린다. 또 그 옆방에 있던 설산은 모포 한 장을 들어 창살 사이로 휘두르면서 “나 장덕수 여기 왔어”하는 소리가 들린다.<sup>41)</sup>

민족대표들이 왜성대에서 혹독하게 고문을 당한 이야기는 해당 인물들의 전기에도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일본 군경의 고문 방법은 72종에 달했으며 제정 러시아가 폴란드 등의 식민지 통치에 사용하던 것을 전수받은 것으로 악랄하기 짝이 없었다.<sup>42)</sup> 이렇게 가혹한 심문에 이어 1920년 7월 12일부터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48인이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중국으로 망명한 김병조와 옥사한 양한목을 제외한 31인과 모의 단계에서 크게 기여한 9인(송진우 현상윤 최남선 함태영 정노식 김도태 박인호 노헌용 김세환), 실행 단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8인(안세환 임규 김지환 김홍규 이경섭 한병익 강기덕 김원벽) 등 17인을 합친 것으로 ‘민족대표 48’인으로 부른다. 당시 동아일보는 “작년 3월 1일에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고 독립을 선언한 후로 열여섯 달과 열이틀 만에 그네들의 운명을 결판하는 제1막이 열린 것이다.”고<sup>43)</sup> 보도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재판은 8월 1일 경성지방법원 예심이 종결되었으나, 경성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특별형사부 간에 내란죄와 보안법의 적용 여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종결되었다. 그 결과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독립선언을 선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손병희, 이승훈(인환), 한용운, 최린, 권동진, 오세창, 이종일 등의 6인은 최고형인 3년 형을 선고받고, 송진우를 비롯하여 현상윤, 김도태, 정노식 등 배후에서 독립운동을 모의하고 획책한 사람은 무죄선고를 받았다.

이들에게 적용된 보안법 및 출판법상 모의나 획책에 가담한 자는 처벌하는 조문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송진우는 1년 8개월의 미결감 생활을 마치고 2020년 10월

39) 앞의 『독립을 향한 집념』, 197쪽에는 3월 중순경으로 밝히고 있다.

40) 송상현, 「현대사 증언」, 《월간 조선》, (2023.12), 416쪽. - 송진우의 손자인 송상현은 필자와의 대담에서 “집안에서 구전되는 얘기로는 민족대표들이 절대로 배후를 비밀에 부치기로 약속한 것을 최린이 불었다”고 증언했다.

41) 이경남, 앞의 책, 105-106쪽.

42) 윤경로, 『105인 사건과 신민회 연구』, (일지사, 1990), pp.132-134.

43) <동아일보> 1920.7.12.(3), 「今日 四十八人の大 公判」

30일 서대문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두고 후대인들은 재판부의 형량에 따라 48인의 의미를 차등시키고, 마치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처럼 오해한다. 그런데 48인의 역할을 살펴보면, 33인 중 최후의 출옥자인 이승훈을 제외한 어느 누구보다 송진우·현상윤·함태영 등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 (2) 3.1운동의 종착점 송진우

서울 중심에 위치한 중앙학교는 국내외의 독립운동가들이 거쳐 지나가면서 그들의 소식이 모이던 ‘불령선인들의 거점’이자 3.1운동의 책원지였다. 송진우는 이 학교의 교장으로서, 그 중심에 서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의 곁에는 동고동락하던 현상윤과 평생 동지이자 든든한 후원자인 김성수가 자리했다. 이를 대하드라마에 비유하면 송진우는 총연출, 현상윤은 조연출을 담당했고, 김성수는 제작자다. 그리고 민족대표 33인은 출연 배우 역할이었다. 이 같은 이상적인 조합이 3.1운동의 단일화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다.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송진우는 후일 3.1운동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피력했다.

우리가 지나간 3.1운동의 실제적인 경험을 고찰하여 보아도 명료할 것이다. 선전이 부족한 것도 아니며, 사상이 박약한 것도 아니건마는 최후의 공을 주(奏)치 못한 것은 물론 대세의 관계도 없지 않을 것이나 이 운동을 통일하여 계속할만한 중심적 단결력이 부족하였던 것이 거짓이 아닌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모든 주의와 사상의 실현에 근거가 될 만한 힘, 곧 단결력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라고 본다.<sup>44)</sup>

이러한 평가는 그가 독립 기회의 필수조건으로 대중을 자각시키고 동원하며 운동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중심적 단결력’, 강력한 ‘정치적 구심체’의 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느낀 것이다. 이 같은 그의 인식은 1920년대 동아일보를 통한 민족적 중심세력의 결집이라는 주장으로 나타나게 된다.<sup>45)</sup>

송진우의 3.1운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제2의 3.1운동’으로 불리는 1926년의 6.10만세운동 때도 중앙학교 학생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때도 송진우는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불려가 심문을 받았지만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그해 4월 ‘3.1운동 7주년 기념사’와 관련하여 체형까지 당하며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았던 것이,<sup>46)</sup> 11월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서대문형무소에 복역하게 되었다. 비록 이듬 해 2월에 단행된 ‘히로히토 천황 즉위 기념식’에서 특별사면이 되었지만,<sup>47)</sup> 송진우에게 3.1운동은 무려 7년을 끌었던 셈이다. 그런 점에서 송진우는 3.1운동의 책원지이자 종착점이었다.

44) 송진우, 「최근의 감(感), 무엇보다도 힘」, 《개벽》 46호(1924.4.1), 92쪽.

45) 이철순, 「고하 송진우의 독립 방략에 대한 고찰」, 《고하 송진우 선생의 항일독립운동과 건국에 관한 이념과 사상》, (고하 송진우 선생 추모 학술세미나, 2015.10.20), 39쪽.

46) <동아일보> 1926.4.21(7), 「체형까지 당한 1심 공판 경과, 송진우 씨는 징역 8개월로」

47) <동아일보> 1927.2.9(2), 「본보 공소 언도 송진우 씨는 징역 6개월 … 필화사건」

## II. 송진우와 동아일보의 문화운동

일제하 신문화운동은 개화운동인 동시에 독립운동이란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sup>48)</sup>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일제 지배 하에서 일어난 모든 신문화운동 - 언론, 출판, 교육진흥운동, 물산장려운동, 한글운동, 심지어 회화운동, 음악운동까지 그 근저에는 민족운동, 독립운동이 자리한다.<sup>49)</sup> 또 1910년대 일본 유학생 출신들에 의해 이론화과정을 거친 실력양성운동론은 1920년대 초 문화운동을 통해 실행과정에 들어간다. 이들은 민족자결주의를 부르짖으며 독립운동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이 끝나자 실력양성운동론으로 되돌아가 문화운동이란 이름으로 실력양성운동을 펼치게 된다.<sup>50)</sup>

한편 3.1운동이 일어난 후 그해 9월 제3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齋藤 實, 1858-1936)는 '문화정치'를 표방하고, 1920년 1월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신문을 허가하였다. 친일적인 색채를 가진 대정친목회의 예종석(1872-1955)에게 조선일보, 신일본주의자 민원식(1886-1921)에게 시사신문, 민족진영의 이상협(1893-1957)에게 동아일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동아일보가 신문화운동 창달에 앞장섰다.<sup>51)</sup> 송진우는 신문화운동이 전개되던 1920·1930년대 동아일보를 이끈 장본인이다. 따라서 송진우의 민족운동과 신문화운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동아일보의 공로자 송진우

#### (1) 신문독재자 송진우

동아일보는 1920년 4월 1일 김성수 외 78명의 발기인으로 창간되었다. 그렇지만 송진우는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르는 중이었고, 10월 30일에 출옥한 이후에도 한동안 고향에 내려가 정양하느라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던 그가 동아일보와 관계를 맺게 된 것은 1921년 1월 하순 주식회사로 전환할 때다. 그는 김성수, 장덕수와 전국 각지의 유지들을 찾아다니며 주식회사 설립에 참여해 줄 것을 권유했다.

결과 예상 자본금 70만원 중에서 1회 납입금으로 17만5천원이 약정되었으나, 실제 들어온 돈은 15만여원으로 2만 5천원이 부족했다. 이에 송진우가 친구범(1893-?)에게 2천주의 출자를 권유하여 1만 5천원을 마련하고, 기존 주주인 양원모(1893-1986)가 1만원을 추가로 출자하여 주식회사로 전환했다. 취체역으로는 송진우 김성수 장덕수 친구범 이상협 장두현(1877-1938) 성원경(1894-1975) 등이 피선되었고, 간부는 사장

48) 조지훈, 「개화사상의 모티브와 그 본질」, 《한국사상》 6집, 39-40쪽. ; 조지훈은 개화사상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우리 개화사상은 서구문명의 섭취운동이며, 그 근저에는 국가적 관념 도는 민족의식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고 정의하였다.

49) 조용만·송건호·박병채, 『일제하의 문화운동사』, (현음사, 1982), 6쪽.

50)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 연구 - 민족주의 우파의 실력양성운동론』, (역사비평사, 1992), 175쪽.

51) 조용만·송건호·박병채, 앞의 책, 114쪽.

송진우, 부사장 장덕수, 전무 신구범, 상무 이상협 등이 선임되었다.<sup>52)</sup>

동아일보가 주식회사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자 김성수는 신문사 운영에 관한 전권을 송진우에게 일임했다. 따라서 그는 사장으로서 경영권은 물론이고, 편집에도 간여하여 신문의 논조와 기사 방향 등을 관장하면서 직접 사설도 썼다. 김동환(1901-1958)이 발행하던 《삼천리》는 조선의 3대 신문사 사장에 대한 인물평을 게재한 적이 있다.

같은 신문사 사장이라도 제가 직접 붓을 들어 사시를 결정하며 또 지상으로 종횡 비약하는 타입이 있고, 그렇지 않고서 저는 (신문)사의 인격적 대표로 외면의 사교와 내면의 경영을 통관하는 두 개의 타입이 있다. 《동아》의 송진우 씨는 전자형이며, 《조선》의 신석우 씨와 《중외》의 안희제 씨는 후자형에 속한다.<sup>53)</sup>

이처럼 조선의 3대 신문사 사장 중에 송진우처럼 전권을 휘두르면서 활동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사장이라는 호칭보다 ‘신문 독재자’로 불려졌다. 송진우는 이에 개의치 않고, 스스로를 ‘독재자’라고 자임하며 소신하는 바를 향해 돌진했다. 이런 그를 두고 1933년 12월 호외에 「소문의 소문, 송 사장과 독재자」라는 기사가 실릴 정도였다.<sup>54)</sup> 내용 중에는 송진우가 오후 늦게까지 편집국에 혼자 앉아 새로 찍혀 나오는 신문을 글자 한 자도 빼놓지 않고 샅샅이 읽는다는 증언도 실려 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동아일보 기자들이 사내 민주화와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면서 언론 개혁을 일으켰다는 주장도 등장한다.<sup>55)</sup>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억지 주장이다.

당시 총독부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검열제도를 시행하였고, 그들이 정한 기준에 저촉되면 삭제, 배포 금지, 압수, 게재 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행정처분이 단 1행(行)만 있어도 재 인쇄를 하게 되어 자재, 인력, 시간 등 많은 손실이 발생했다. 동아일보는 창간 2주 만인 1921년 4월 15일자 사회면 기사 ‘평양에서 만세 소요’가 처음으로 발매 배포금지를 당한 후, 그해 9월 제1차 정간이 되기까지 6개월 동안에 24건에 달하는 행정조치가 잇따랐다. 따라서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필화를 예방하는 것이 경영 정상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였다.<sup>56)</sup>

## (2) 언론경영인으로서의 송진우

독재자 송진우의 면모는 언론경영인으로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920년대 조선의 3대 신문이던 동아·조선·시대일보 가운데, 경영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곳은 동아일보가 유일했다. 1920년 3월 출범한 조선일보는 1933년 1월 방응모(1883-1950)가 인수할 때까지 경영진이 8차례나 바뀌고, 1924년 3월 최남선이 창간한 시대일보는 중외일보, 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 등으로 제호를 변경하는 가운데 경영진이 교체되고 있었다.

동아일보도 송진우가 사장에 취임할 당시 날마다 빗 독촉에다 사건 사고가 그치지

52) 「동아일보사 20년사」, 《삼천리》, 제12권 8호(1940년 9월호), 22-25쪽.

53) 「인재 순례 - 제1편, 신문사측」, 《삼천리》 제4호(1930년 1월호), 31쪽.

54) 고희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거인의 숨결』, (이야기의 숲, 2023), 292쪽.

55) 최민지·김민주, 『일제 하 민족 언론사론』, (일월서각, 1978), 139쪽.

56) 장신, 「1930년대 언론의 상업화와 조선·동아일보의 선택」, 《역사비평》 70호(2005. 봄), 171쪽.

않았다. 이런 가운데 송진우는 신문사 운영의 전권을 갖고 독재자로 군림한 것이다. 그 결과는 동아·조선·시대(중외)일보의 정립지체로 불리던 언론계의 지형이 1930년을 전후하여 동아일보 독주로 바뀌었다. 당시 세 신문의 발행부수는 아래 <표1>과 같다.

<표 1> 한국인 경영 신문 발행 부수<sup>57)</sup>

	1929	1931	1933	1934
동아일보	37,802	41,293	49,947	52,383
조선일보	23,486	28,192	29,341	38,653
조선중앙일보	14,267	19,162	18,194	24,521

조선일보 영업국장 출신으로 나중에 동아일보 사장이 되는 백관수(1889-?)는 3대 신문사의 경영 상황을 자세히 비교했다. 그에 의하면, 조선에서 신문 사업이 어려운 외부 환경으로 ①빈약한 자본력 ②일반의 낮은 생활수준 ③일제 당국의 언론 탄압 ④신문에 대한 민중의 기대 과다 등을, 내부 요인으로 사내 분규와 자본 운용 실패를 들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내 분규’인데, 이에 따라 그가 내린 결론은 3대 신문 중에 동아일보만 안정된 성장을 한 것은 송진우의 경영 능력 때문이었다.<sup>58)</sup>

한편 정진석은 언론경영인으로서 송진우의 유능함을 나타내는 사례로 ‘1921년 만국기자대회 파견’ ‘전국적인 지국 확장’ ‘재외동포 위안회 사업’의 세 가지를 들었다.<sup>59)</sup> 송진우는 동아일보 사장에 취임한 직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제2차 만국기자대회에 김동성 기사를 파견하였다.<sup>60)</sup> 그 당시 동아일보는 재정난으로 운전자금이 6천원 밖에 남지 않았는데, 매일 2천 원씩의 순결손이 발생하여 3개월 후면 신문사가 문을 닫을 위기가 닥쳤다. 그때 송진우는 간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은 운전자금의 반액인 3천원을 김동성에게 주어서 만국기자대회에 특파했다.

그런데 김동성의 부회장 당선 소식이 전해지면서, 13도로부터 축하 광고를 통해서 4-5만원에 달하는 모금이 이뤄져 재정 상태를 일거에 호전시키게 되었다.<sup>61)</sup> 송진우가 김동성의 출장을 허가할 때는 일본의 방해로 조선이 참가국으로 인정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마치 사운을 건 도박처럼 보였다. 이런 상황을 가까이서 지켜본 유광렬(1899-1981)은 신문경영인으로서 선견지명과 담대한 실행력의 결과로 평가했다.<sup>62)</sup>

이렇게 해서 동아일보의 재정을 일거에 호전시킨 송진우는 전국적으로 산재한 지국 조직망을 ‘대 지국’에서 ‘소 지국’ 제도로 변경하고, 1922년 2월 제1차 전국 지국장 회의를 열어 조직의 결속을 도모했다. 이 무렵 동아일보의 지국은 국내 뿐 아니라,

57) 정진석, 「일제하의 언론·출판 연구 : 일제의 언론정책을 통해 본 한인·일인의 신문·잡지·단행본 발행 실태 비교」, 《신문연구》, 제27집, (관훈클럽, 1978.10), 254쪽

58) 한양학인, 「조선 신문론」, 《동방평론》 제2호(1932.5) ; 앞의 『거인의 숨결』, 286-287쪽에서 재인용. 한양학인은 백관수의 필명으로 추정된다.

59) 정진석, 앞의 글, 38-41쪽.

60) 동아일보사 편, 『동아일보사사』 권1, (동아일보사, 1975), 168-171쪽 ; <동아일보> 1921.9.28(1).

61) 김병로, 「언론계의 지보 송진우 씨」, 《삼천리》 7-3(1935.3), 33쪽.

62) 유광렬, 앞의 글, 14쪽.

조선족 교포가 밀집한 만주로까지 뻗어나갔다. 이것이 경쟁사와 비교하여 판매망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 위안회’를 발기하여 국내 동포로 하여금 해외 동포들에 대한 애족심을 높이고, 해외 동포에게는 조국애를 고취시켜 상호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일대 국민운동을 일으켰다. 9개월에 걸쳐 85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강연회를 개최하자 참석한 군중이 무려 6만여 명에 이르는 대성황을 이루었고 입장료가 3만7천여원에 달했다. 이때 얻은 수입과 이자 수입을 합쳐 북간도, 만주, 중국, 일본, 미국 등지의 해외동포 2세 교육 사업에 사용하였던 것도 송진우가 추진한 성공적인 사업이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다. 동아일보는 1923년 상무취체역 겸 편집국장이던 이상협을 일본에 파견하여 일본 상품 광고를 적극 유치했다. 결과 1923년에는 전체 광고량에 일본상품 광고가 36%에 달했고, 1924년에 50%에 육박하다가 1925년에는 60% 안팎을 오르내렸다.<sup>63)</sup> 이에 대해 이상협은 자신이 반대하는 주주들을 설득하여 단독으로 오사카 광고시장을 개척했다고 주장하지만,<sup>64)</sup> 당시 전권을 가졌던 사장의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에서 송진우의 능력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sup>65)</sup>

### (3) 동아일보의 파수꾼 송진우

3.1운동이 발발하자 조선총독부는 소위 ‘문화통치’를 내세워 이듬해인 1920년 1월 3개의 한국인 민간신문 발행을 허가했는데, 이 중의 하나가 동아일보다. 창간 당시 민족대변지라는 자각으로 출발한 동아일보는 격렬한 항일 필봉을 휘둘러서 총독부의 주요 탄압대상이 되었다. 네 차례 무기정간과 수많은 발매반포 금지·압수·삭제 등으로 총독부의 혹독한 탄압을 받았다.

첫 번째는 일본 황실의 상징인 ‘3종 신기’(神器)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1920년 9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4개월간, 두 번째는 국제농민조합본부에서 보낸 「3.1운동 7주년 기념축사」를 게재한 이유로 1926년 3월부터 4월까지 1개월간, 세 번째는 한민족의 항쟁을 고무한 미국 네이션지 주필의 서한을 게재한 이유로 1930년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네 번째는 베를린올림픽 마라톤경기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유니폼에서 일장기를 삭제한 사진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1936년 8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10개월 동안의 정간 처분을 당하였다. 이 가운데 1920년의 ‘3종 신기 비판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송진우가 사장으로 재임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송진우는 1936년 11월 11일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조선총독부의 강요에 의해 퇴진 당했다. 이때부터 동아일보의 강제 폐간을 막기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김성수는 송진우에게 가족이 소유한 동아일보 주식 4,710주를 무상양도하고, 송진우는 다시 사장으로 내정된 백관수에게 4,000주를 양도했다. 이렇게 계속 주식을 양도한 것은 그때, 그때마다 상황에 맞춰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다가 강제 폐간 압박이 거세진 1940년 3월 중순 송진우는 동경으로 건너가서

63) 장신, 앞의 논문(2005), 171쪽.

64) 白岳山人(이상협), 「북면객의 인물평 - 권토재래의 이상협 씨」, 《삼천리》 10-12(1938.12), 45-6쪽.

65) 앞의 「동아일보사 20년사」, 23쪽.

중앙조선협회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미나미 지로(南次郎, 1874-1955) 총독의 비행을 고발한 결과 제국의회에서 조선총독부의 언론통제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sup>66)</sup> 이로 인해 총독부와 폐간 협상을 갖게 되자, 송진우는 대표 청산위원을 맡아서 청산 작업을 담당하였으며, 1943년 1월에 동아일보사의 건물관리 회사인 동본사의 사장을 맡았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맞서 동아일보와 운명을 같이 한 셈이다.<sup>67)</sup>

송진우와 동아일보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해방이 되고 1945년 12월 1일 동아일보가 복간이 되자, 또다시 제8대 사장에 취임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은 12월 30일 세상을 떠났다. 이런 이유에서 송진우는 일제강점기동안 동아일보를 지킨 파수꾼이었다. 『동아일보사사』(東亞日報社史)에는 1권 첫머리에 ‘창설자 김성수’ ‘공로자 송진우’라고 두 사람을 나란히 소개한 후 동아일보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 2) 동아일보와 민족문화운동

일제하 민족문화운동을 민족정신과 전통문화를 토대로 하여 국권회복을 도모하는 독립운동이라고 전제할 때, 1910년대 민족주의사상·운동은 문명개화·근대지상주의를 추구하는 타협적 실력양성운동과 전통을 중시하는 국수주의적 비타협적 무장운동으로 분화되었다. 그러던 것이 3.1운동 이후 민족주의자들이 자유주의적 민족자결의 세계 개조시대를 맞이하여 민족운동이 나가야 할 바를 제시한 것이 자본주의문명의 수립을 위한 실력양성운동, 문화운동이었고,<sup>68)</sup> 그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동아일보다.<sup>69)</sup>

1920·30년대 동아일보의 문화운동은 민립대학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 자치운동, 브나로드운동 등 다방면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송진우의 민족운동’이라는 주제에 맞게 동아일보 사업보다는 송진우 개인의 민족운동 차원에서 주도한 것으로 여겨지는 단군정신 선양사업과 이충무공유적보존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단군영정 공모와 백두산 기획 보도

3.1운동 이후 신지식인층의 주도로 펼쳐지는 실력양성운동의 흐름 속에 동아일보는 타협적 민족주의 진영의 선두에서 문화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동아일보는 창간 사설에서 우리 민족의 민족적 운동으로 전개해야 할 의식적 사회운동을 문화운동이라 칭하고 문화주의를 제창했다.

이는(문화주의: 인용자) 개인이나 사회의 생활 내용을 충실히 하며 풍부히 함이니, 곧 부의 증진과 정치의 완성과 도적의 순수와 종교의 풍성과 과학의 발달과 철학 예술의 심원오묘(深遠奧妙)라. 환언하면 조선 민족으로 하여금 세계 문명에 공헌케 하며, 조선 강산으로 하

66) <동아일보> 1945.12.2(2), 「본보 폐간까지의 경로」

67) 장신, 「조선총독부의 언론 통제와 동아일보·조선일보 폐간」, 《역사문제연구》, 35호(역사문제연구소, 2016.4), 410-413쪽.

68) 이지원, 「일제하 민족문화 인식의 전개와 민족문화운동 - 민족주의 계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2), 157쪽.

69) 박찬승, 앞의 책, 176쪽.

여금 문화의 낙원이 되게 함을 고창하노니 이는 곧 조선 민족의 사명이요 생존의 가치라.<sup>70)</sup>

이어진 사설의 내용에 의하면, 신문화건설은 개인과 사회·국가의 유기체적 관계에 대한 자각을 토대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강조되었던 사회가 민족이다. 유기체적인 민족정신과 대동단결의 상징으로 부각된 민족문화의 유구성과 고유성 정점에 단군이 있다. 단군은 세계사적으로 고대 문명에 견줄만한 조선 문명과 중국 문화에서 해방된 독자적인 조선 문화의 개창자였으며, 국민단합력의 기초인 국풍의 상징으로 의미가 부여되었다. 여기서 단군의 선양은 단순한 복고적 취향의 전통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근대적 신문화건설을 위한 민족의식의 상징으로서 재현된 전통이다. 따라서 1920년대 식민체제 안에서 민족주의 세력은 단군을 선양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다.<sup>71)</sup>

이 때문에 동아일보의 최초 사업도 단군 영정을 현상 공모한 일이다. 동아일보는 창간 10일 만인 1920년 4월 11일자로 ‘단군영정 현상모집’을 공고하였다.

우리 민족의 종조이시오 우리 근역(權域)에 건국하신 제1인이시오 가장 신성하신 대 위인인 단군의 존상(尊像)을 구하여 독자와 공히 배(拜)하려고 현상 모집한다.<sup>72)</sup>

그러나 응모가 부진하여 4월 30일로 정하였던 응모기간을 5월 15일로 연기했지만, 만족할만한 작품을 구하지 못해 9월 30일로 재차 연기하여 음력 10월 3일 개천절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9월 하순에 제1차 무기정간을 당해 중단되고 말았다. 이처럼 단군영정 공모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좌절되었지만, 창사 이후 첫 사업으로 전개한 의도는 민족지를 지향하는데 따른 발상이었다.

두 번째 사업은 1921년 8월 백두산에 특파원을 보내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그 취지는 탐험이 아니라, “단군 탄강(誕降)의 성지요. 근역(權域) 산하의 조종이라고 전승되어 온 영산(靈山)”의 모습을 소개함으로써, 민족정기를 일깨우려는 취지였다. 따라서 8월 21일부터 17회에 걸쳐 민태원의 「백두 산행」을 연재하였고,<sup>73)</sup> 27일에는 권덕규의 「조선 역사와 백두산」이라는 제하의 강연회가 개최되었다.<sup>74)</sup>

단군영정 공모와 백두산 탐방으로 민족정신 고취를 시도하던 동아일보는 1925년 육당 최남선을 객원 촉탁으로 영입하면서 단군 선양 논조를 본격화했다. 3.1운동 때 민족대표 ‘48인의 1인’으로 기미독립선언서를 작성한 혐의로 투옥되었다가, 1921년 석방된 최남선은 출옥 후에는 1922년 9월 주간지 《동명》을 창간하였고, 1924년에는 《시대일보》 사장에 취임했으나 자금 부족과 총독부의 압력으로 폐간하고 말았다,

이후 최남선은 1925년 조선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는 계명구락부에 참여하였는데, 이곳에서 활동하던 송진우, 김성수와 뜻을 함께하고 《동아일보》에 객원으로 사설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해 10월 조선신궁이 완성되어 천조대신과 명치천황을 제신으로

70) <동아일보> 1920.4.1(1), 「主旨를 宣明하노라」

71) 이지원, 앞의 논문, 330쪽.

72) <동아일보> 1920.4.11(3), 「단군 영정 모집」

73) 민태원, 「白頭山行」(전17회), <동아일보> 1921.8.21(1)-9.8.

74) 권덕규, 「공개된 聖山의 神秘: 權憲奎 씨의 백두산 역사 강연」, <동아일보> 1921.8.29(3),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자, 단군 선양은 일제의 종교적 정신적 지배에 대응하는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에 최남선은 일제의 식민사관에 대항해서 한국 고대문화의 세계사적 위치를 밝히고자 하는 의도에서 「불함문화론」(不咸文化論)을 제기하면서 동방문화의 근원지를 단군 신화의 무대인 백두산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1926년 2월 11일자 사설에서 일본이 조선인 민족정신의 출발점이 되는 단군 국조를 의식적으로 말살하려 한다고 비판하고,<sup>75)</sup> 3월 3일부터 7월 25일까지 75회에 걸쳐 「단군론」을 발표했다.<sup>76)</sup> 이와 같이 계명구락부와 동아일보의 연계 하에 추진된 단군 선양, 고문화 보급 등은 자치운동을 추진하는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이 일제의 동화주의를 비판하고 ‘민족성’의 고양을 내세우는 중요한 테마로 기능하고 있었다.<sup>77)</sup> 그 중심에는 동아일보와 송진우 사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 (2) 동아일보의 이충무공유적보존운동

1930년 9월 20일 동아일보는 충남 아산군 음봉면 삼거리에 있는 이순신 장군 묘소 위토가 경매에 팔릴 위기에 처한 사실을 보도했다.<sup>78)</sup>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후인 1931년 5월 12일 고영환의 유적순례기가 실리는데 이어, 다음 날인 13일에는 은행에서 경매를 최후 통지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다시 14일에는 이 문제를 ‘민족적 수치’라고 간주한 사설이 실렸고, 15일에는 성금 모금을 제안한 정인보(1893-1950)의 기고문이 게재되자 이날부터 전국에서 성금이 답지하기 시작했다. 동아일보는 계속하여 위토와 현충사 문제와 관련한 내용의 사설, 기사 등과 성금 현황의 광고성 기사도 실었다.

한편 5월 23일 조선교육협회를 운영하던 유진태(1872-1941)의 주도로 충무공유적보존회가 결성되었다. 위원장으로 윤치호(1865-1945)가 선임되었고, 위원은 송진우를 비롯한 14인이었다.<sup>79)</sup> 이에 동아일보와 충무공유적보존회는 공동모금을 시행하면서, 성금의 관리는 동아일보, 집행은 충무공유적보존회가 담당했다. 이 모든 일을 실제로 주도한 사람이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다. 그는 기사 작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편집국장 이광수(1892-1950)에게 현충사에서 고금도까지의 순례기와 함께 장편소설 「이순신」을 연재할 것을 지시했다.<sup>80)</sup> 이에 이광수는 장편소설 「이순신」을 연재하게 된 경위에 대해 송진우의 권유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내 친구 고하(古下)는 과거 조선에 숭앙할 사람은 단군·세종대왕·이순신 3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하는 날더러 3부곡으로 <단군> <세종대왕> <이순신>을 쓰라고 권합니다. ... 내가 그리려는 이순신은 이 충의로운 인격입니다. 상상이 아닌 옛 기록에 나타난 그의 인격을 내 능력껏 구체화하라는 것이 이 소설의 목적입니다.<sup>81)</sup>

75) 최남선, 「檀君否認의 妄 ‘文教의 朝鮮’의 狂論」, <동아일보> 1926.2.11-12.

76) 최남선, 「檀君論, 朝鮮을 中心으로 한 東方文化淵源研究」, <동아일보> 1926.3.3-7.25.

77)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해안, 2007), 249쪽.

78) <동아일보> 1930.9.20.(2), 「李忠武公廟閣이 頽落, 제로는 은행에 저당되고 春秋亨祀도 끄칠 地境」

79) 김주식, 「1930년대 이충무공유적보존운동의 전개와 한계」, 《이순신연구논총》 제37호(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22.12), pp.16-18.

80) 김학준, 앞의 책, 132쪽. ; 이지원, 「1930년대 민족주의 계열의 고적보존운동」, 《동방학지》 77·78·79 합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3.6), p.766.

이에 따라 동아일보는 현충사나 위토 문제가 아닌 이순신에 대한 여러 유형의 글을 게재했다. 1931년 6월 1일부터 14회에 걸쳐 이광수의 「유적 순례」가 게재되는데 이어, 6월 26일부터 이듬 해 4월 3일까지 총 178회에 걸쳐 이광수의 장편소설 「이순신」이 연재되었다. 이밖에도 <이순신 초상화>(최우석 작), 《이충무공전서》 독후감, 충무공 유물 설명문 등을 게재하였다. 모든 것이 송진우의 계획대로 실행되었다.<sup>82)</sup>

동아일보가 1931년과 1932년에 이렇게 이순신 관련 글을 집중적으로 게재한 것은 성금 모집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과 1932년 5월 29일까지 해외동포를 포함한 2만1천여 명이 낸 성금은 16,021원30전이였다. 송진우의 언론경영인으로서 기획력과 민족주의자로서의 의지가 어우러진 성과인데, 이를 두고 이런 촌평이 나올 정도였다.

또 요새 이충무공 성금 모집도 2만원을 돌파했으니, 이 돈 없는 조선에서 그만한 돈을 모은다는 것은 신문의 위력이 아니고는 못할 일이 아닌가.<sup>83)</sup>

이에 따라 1932년 6월 5일 아산에서 현충사 낙성식과 영정봉안식을 개최하였는데 전국에서 약 3만 명이 참석하였다. 현충사 낙성식은 현충사 정문 앞 관장에서 위원장 윤치호의 식사와 송진우의 경과보고, 백관수의 건축개요보고, 유억겸의 결산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보존회는 후속 사업으로 한산도의 제승당 중건을 위해 송진우와 유진태를 통영에 특파하여 충열사보존회와 협의하였다. 곧이어 동아일보 통영지국을 중심으로 모금한 결과, 1933년 5월 25일 제승당을 준공하고 6월 2일 영정봉안식과 준공낙성식을 가졌다.

<표 2> 동아일보에 게재된 이순신 관련 기사 현황(1931-1935)

연도	현충사·충무공유적보존회 기사	이순신 기사(연재소설)	계(연재소설)
1931	31	27(39)	58(39)
1932	9	20(139)	29(139)
1933	0	9	9
1934	1	4	5
1935	3	7	10
계	44	67(178)	111(178)

이처럼 이충무공유적보존운동이 대중운동으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는 1930년대 초반 민족주의 우파계열이 새로운 민족운동 방향을 모색하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sup>84)</sup> 그렇지만 이충무공유적보존회에 대표적인 민족주의자들이

81) <동아일보> 1931.5.23.(2). 「李光洙 作 李象範 畫, <李舜臣>(長篇小說) 六月 中旬부터 掲載」

82) 김주식, 앞의 글, p.32.

83) 「조선신문계총회담, 무명거사」, 《동광》 제 28호(1931.12.1.).

84) 김도형, 「1930년대 '이충무공유적보존운동'의 전개와 그 성격」, 《이순신연구논총》 제15호 (2011.6).

위원으로 망라되었지만, 명의를 빌려주고 보존활동과 실무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다른 신문들도 냉담한 반응이었다. 이에 편승한 사회주의자들의 비판 주장과 더불어 조선일보사의 냉랭한 태도와 동아일보사의 지나친 물입을 지적하는 여론도 있었다.

이순신을 거하여 정신적으로 민족적 동원을 시험하여 성공한 동아일보의 태도 근래에 상영(爽英)하다. ... 그런데 조선은 싸움하기에, 동야는 죽은 이순신 찾기에 너무 취하여 예년의 하기봉사도 금년은 물로 씻은 듯이 (없어)졌다.<sup>85)</sup>

그에 반해 송진우는 1917년 중앙학교장 시절 삼성사(三聖祠)건립기성회를 조직하여 단군, 세종대왕, 이순신의 사당을 남산에 건립하려고 시도하였다가 일제의 조선신궁 건립으로 실패한 적도 있었다. 이 때문에 1931년 5월 13일 동아일보에 이충무공의 묘소 위토 문제에 대한 첫 기사가 나간 후 송진우는 정인보를 찾아가 “삼성사 계획이 실패한 뒤로 이런 일을 하나 하지 못해 늘 꺼림칙하더니 마침 잘 되었소. 그 산판을 후손들에게 도로 찾아주고 거기다가 현충사를 짓는 것이 어떨까요.”하고 상의했다.<sup>86)</sup> 이때부터 송진우는 이충무공유족보존운동을 진두지휘하였다. 얼마나 몰두했는지 이를 두고 동아일보가 소비한 지면이 너무 비경제적이라고 비판하는 지적까지 등장했다.<sup>87)</sup>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운동은 원래의 목적을 달성했고,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것은 동아일보와 송진우 사장이다. 동아일보가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민족 신문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88)</sup> 무엇보다도 이충무공유족보존운동을 계기로 잠재된 민족의식을 대중적 차원의 민족운동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민족적 지성의 결정’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sup>89)</sup>

1940년대 학술 연구를 표방한 민족주의운동을 펼치다가 투옥된 임병철(1924-?)은 이충무공유족보존운동 뿐 아니라, 조선민립대학설립운동, 브나로드운동 등 동아일보가 시행한 문화운동들이 모두 ‘열(熱)의 신문인’으로 불리던 송진우가 민족주의의 본색을 발휘한 행동의 결과라고 평가하였다.<sup>90)</sup>

### Ⅲ. 1924년 동아일보 개혁운동 전말

송진우의 25년에 걸친 동아일보와의 인연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아직도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1924년 임시주총 사건’(동아일보 개혁운동)의 전말에 대해

---

28-33쪽.

85) 「회고·수기 신문 야화」, 《삼천리》 제3권 9호(1931.9.1.).

86) 앞의 『고하 송진우 선생 전』, 65쪽.

87) 이돈화, 「조선 신문의 특수성과 그 공과」, 《개벽》 1935년 3월호, p.30.

88) 김주식, 앞의 글, 55쪽.

89) 김도형, 앞의 글, 11쪽. ; <동아일보> 1932.6.3.(1), 「民族的至情의 結晶, 忠武公 遺蹟의 完保」

90) 임병철, 「인물 소추 : 송진우」, 《신천지》 1권 1호(1946.2), 28쪽.

살펴보고자 한다.

### 1) 숨겨진 동아일보의 역사

1921년 9월 주식회사로 재출범한 동아일보는 송진우 사장의 유능한 경영 능력이 나타나면서 내부가 안정되고 사세도 확장되었다. 그러던 것이 1924년 4월 들어 소위 '편집국 기자들의 개혁운동'으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물론이고 편집국의 간부까지 일괄 퇴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그로부터 20일 후인 5월 14일 이승훈이 제4대 사장에 취임하면서 일단락되었다.

5월 14일 본사 임시주총에서 후임 취체역으로 이인환(승훈) 홍명희 허헌 윤홍열 양원모를 보선하였다. 같은 날 중역회의에서는 이승훈을 동아일보 제4대 사장으로 선출, 전무·상무도 겸하도록 하고, 이승훈이 창립한 정주 오산(五山)학교의 교장직으로 있던 홍명희를 주필 겸 편집국장에 임명하였다.<sup>91)</sup>

이 말은 이승훈에게 사장·전무·상무를 겸하는 경영권 일체를 맡기고, 그가 데려온 오산학교장 홍명희에게 편집권을 맡긴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이승훈에게 동아일보의 전권을 준 셈인데 이상한 점이 여럿 발견된다. 보부상으로 자수성가한 기업인 출신의 이승훈이 동아일보 사장으로 선임된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이때까지 홍명희는 오산학교와 아무런 인연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아일보사사』에는 기록되지 않는 이면의 사연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관련 자료를 찾던 중에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승훈과 홍명희는 주주총회에서 사장 자리를 놓고 다투던 경쟁자였다.<sup>92)</sup> 그렇지만 이들이 왜, 어떻게 출마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박춘금 협박사건'으로 위기에 봉착한 동아일보가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3.1운동의 지도자로서 명망이 높던 이승훈을 사장으로 추대했다는 것이 정설이었다.<sup>93)</sup> 따라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바탕 위에서 약간의 추리력을 동원하여 살펴볼 수밖에 없다.

#### (1) 사건의 성격

원래 이 사건은 동아일보사에 불만을 가진 사회주의자들의 책동이면서 이 기회에 편승한 소수의 소장 기자들이 일으킨 내분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 후반 언론 민주화운동의 영향으로 인해 사건의 성격이 동아일보 경영진이 보여준 독선과 비민주적 운영에 항거한 기자들의 언론개혁운동으로 바뀌었다. 1978년에 출간이 된 『일제하 민족 언론사론』에서는 이 사건을 1975년 동아일보에서 일어난 자유언론실천 선언의 집단해고사건과 동일한 성격의 사건으로 비교하고 있다.

91) 앞의 『東亞日報社史』 권1, 235쪽.

92) <조선일보>, 1924년 5월 16일자

93) 김형석, 「남강 이승훈 연구 - 1920년대의 민족운동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38, (한국사학회, 1984), 697-698쪽.

(1924년 개혁운동은) 오늘날 자유언론실천을 요구한 130여 기자들을 무더기로 무자비하게 쫓아낸 1975년 3월의 동아일보 사태를 생각할 때, 당시 동아 기자들의 개혁운동의 전말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동아일보의 경영주는 기자를 동역자, 민중의 공기(公器)에 종사하는 사회적 공인(公人)으로 보지 않으며, 신문사를 민중의 것으로 보지 않으며,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보고 기자를 단순한 고용인으로 본다는 사실이다.<sup>94)</sup>

그런데 이와는 달리 1922년 2월 ‘김윤식(1835-1922) 사회장 사건’부터 1924년 1월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 필화사건’과 연이은 ‘박춘금 협박사건’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동아일보 불매운동’을 주목하고, 그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기자들의 편집권 요구는 개혁운동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sup>95)</sup>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연구는 2006년 장신이 발표한 「1924년 동아일보 개혁운동과 언론계의 재편」이<sup>96)</sup> 유일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 기초하여 당시 상황을 재조명해 본다.

## (2) 사건의 발단

1924년의 시작과 동시에 1월 2일자부터 6일자까지 5회에 걸쳐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이라는 제목의 사설이 연재되자, 일부 사회주의계열에서는 동아일보 주도층과 민족 해방운동의 노선을 둘러싸고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1월 10일 경남노동운동자간친회에서 동아일보를 민족운동에 해가 되는 ‘유산계급의 기관지’로 규정하고 박멸을 주장한데 이어, 3월 4일에는 전라노동연맹회에서 ‘동아일보 비매운동을 결의하였다. 뒤이어 4월 18일 조선노동연맹회와 조선노동대회준비회가 연대한 전조선노동총동맹 결성식에서도 ‘동아일보 비매운동’을 선포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서울에 노동상애회가 조직된 것을 계기로 동아일보가 박춘금을 비롯한 친일 각파유지연맹, 폭력조직 등을 비난한 기사를 보도하자 4월 2일 동아일보 사주 김성수와 사장 송진우를 식도원이라는 요정으로 불러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외부적으로 곤경에 처하자 내부에서도 신문사의 잘못된 행적으로 ‘(조선의 비행가) 안창남 기사’ ‘김동성 세계기자연맹 부회장 당선 호외’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 사설’ ‘각 단체에 자금을 불출한 일’ 등을 거론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을 민중에게 맹세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소장파 기자들은 박춘금 협박사건에 대응하는 경영진의 입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편집국장 이상협을 앞세워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사장과 간부 5명, 논설반 기자 1명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발전하자 4월 25일 재경 주주총회를 열고 사장 송진우, 전무 신구범, 상무 겸 편집국장 이상협, 취체역 김성수·장두현의 사표를 제출 받아서 일괄 수리했다. 이어 5월 14일 경영진 선출을 위한 임시주총 때까지 감사역 허헌이 사내 직무를 대행하기로 의결했다.<sup>97)</sup>

94) 최민지·김민주, 앞의 책, 140-41쪽.

95) 채백, 앞의 책, 63-92쪽.

96) 장신, 「1924년 동아일보 개혁운동과 언론계의 재편」, 《역사비평》 통권 75호(2006. 여름)

97)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1924.4.25. 임시주주총회의록」, <大正8年9月以降取締役會議議錄> ; 장신, 위의 논문, 253쪽에서 재인용.

(3) 공산주의자들의 활동

막상 선거가 시작되자 동아일보를 장악하여 사회주의를 전파하는 도구로 삼으려는 공산주의자들과 경영권을 사수하려는 사주 측의 대결이 벌어졌다. 국내에 공산주의가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초기로서 수용 통로는 ①사회운동 조직 ②해외에서 반입되는 출판물 ③국내 공산주의 단체 ④신문과 잡지 등의 정기 간행물 등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한 것은 신문과 잡지를 통한 언론 활동이었다.<sup>98)</sup>

<동아>와 <조선>의 경우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관련된 논설은 아래 <표 3>과 같이 1923년부터 1927년에 이르는 5년 동안 가장 많이 나타났다. 공산주의자들이 언론을 이용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코민테른이 제6회 대회(1928.12.10)를 마치고 보낸 ‘12월 테제’에 “당 문제의 토의와 당의 품위에 불신을 초래할지도 모를 논쟁에서 자유주의적인 부르주아 신문을 이용했다.”고 비난하는 일이 발생했다.<sup>99)</sup>

<표 3> 동아·조선일보의 연도별 공산주의 관련 기사 건수<sup>100)</sup>

	1924년	1925년	1926년	1927년	1928년	1929년
동아일보	21	22	13	10	3	8
조선일보	25	57	39	44	18	12
계	46	79	52	54	21	20

1924년 동아일보를 둘러싼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은 ‘불매운동을 전개하여 영향력을 말살하려는 세력’과 ‘경영권을 빼앗아 공산주의 선전 도구로 삼으려는 세력’으로 구별된다. 전자는 김종범·서정희 등 북성회 계열이 주도한 남조선노동연맹회이고, 후자는 개혁을 부르짖으며 사장 경선에 나선 홍명희와 홍증식(1895-?)으로 화요회 소속이다. 이밖에 상하이파 공산주의자인 주종건(1895-?) 이봉수(1892-?) 등은 100주 이상을 가진 대주주만 취체역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관>의 개정을 주장하다가 실패하자, 주종건은 주식 100주를 매수한 후에 임시 주총에 대비하고 있었다.<sup>101)</sup>

2) 동아일보를 둘러싼 좌, 우 대결

송진우가 사장에서 퇴진하자 사주 김성수는 미국에 유학중이던 장덕수에게 귀국을 권유했지만, 그의 고사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sup>102)</sup> 이에 보성전문 교장으로 감사역을

98) 유재천, 「일제 하 한국 신문의 공산주의 수용에 관한 연구(3)」, 《동아연구》 18, (서강대 동아연구소, 1989.6), 182-83쪽.

99) 서대숙, 현대사연구회 역, 『한국공산주의운동사연구』, (이론과실천, 1985), 110쪽 ; 유재천, 「일제 하 한국 신문의 공산주의 수용에 관한 연구(1)」, 《동아연구》 7, (서강대 동아연구소, 1986.3), 166쪽.

100) 유재천, 앞의 논문(1989), 204쪽.

101) 장신, 앞의 논문(2006), 255쪽.

102) 위의 논문, 260쪽.

겸직하던 허헌(1885-1951)을 염두에 두고 임시주총 때까지 사장 직무대행을 맡겼다. 허헌은 함북 명천 출신으로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하여 메이지대학교 법과를 마친 후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었다. 3.1운동의 공판에 민족대표 48인의 변론을 맡았으며, 노동자와 빈민을 돕는 사회운동가로도 알려졌다.

허헌과 함께 윤홍렬(1893-1947)이 경선에 나섰다. 대구 출신으로 일본에 유학하여 메이지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1920년에 도쿄에서 조선민우사를 발기하여 언론활동을 시작했다. 1921년에 귀국한 후에는 대구청년회에서 주로 활동하였는데, 1923년 7월 1일부터 동아일보 대구지국장 서상일(1886-1962)에 의해 '재경 특파원'으로 발령을 받고 서울에서 근무하던 기자였다.<sup>103)</sup>

당시 <정관>에 따른 사장 선출 방식은 1차로 주주총회에서 취체역을 선출한 후에, 2차로 취체역 회의에서 사장을 선임하는 간선제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사주 입장은 1차 주총에서 허헌과 윤홍렬을 취체역으로 선출한 후에, 2차 취체역 회의에서 허헌을 사장으로 선출하는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임시주총에 대비하였다.

#### (1) 벽초 홍명희의 출마

이때 전혀 예상치 않았던 홍명희(1888-1968)가 나타났다. 충청북도 괴산 출신으로 일본 유학 당시 육당 최남선, 춘원 이광수와 더불어 조선의 '3대 문호'로 불리던 벽초 홍명희다. 그는 유학생할 중에 사상적인 변민에 빠져서 학업을 중단하고 1910년 봄에 중도 귀국했다가, 다시 출국하여 중국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방랑생활을 이어갔다. 1918년 귀국한 후에는 괴산에서 은둔하던 중에 3.1운동이 일어나자, 3월 19일 괴산 만세시위를 주도하여 징역 18개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0년 4월 출옥하자 상경하여 휘문고보와 경신고보에서 교사로 학생을 가르치다가, 1923년부터 조선도서 주식회사 전무로 일하던 중에 동아일보 사장 경선에 출마한 것이다.<sup>104)</sup>

당시 홍명희의 행적을 보면, 매우 가난했던 그가 어떻게 100주 이상을 가진 주주만 자격이 주어지는 사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홍명희가 동아일보 창업 주주로 200주를 청약한 후에 1차로 350원을 불입했다”고 한다.<sup>105)</sup>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이고 홍명희는 누군가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았는데,<sup>106)</sup> 필자는 신사상연구회에서 함께 활동하던 홍증식이 배후에 자리한 것으로 추측한다. 홍증식은 동아일보와 창간 초기부터 인연을 맺고 있었다.

1920년 9월 25일자로 정간 처분을 받은 동아일보는 1921년 1월 10일 정간이 해제되었고, 속간이 되기까지 다시 1개월 이상 지연이 되어 속간 호를 낸 것은 2월 21일자이다. 속간이

103) 김일수, 「한말·일제강점기 윤필오·윤홍열·윤우열 삼부자의 사회활동과 그 의미」, 《한국학논집》 71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8.6), 301-12쪽 참조

104) 강영주, 「벽초 홍명희 - 3.1운동에서 신간회운동까지」, 《역사비평》 26호(1994 봄), 145쪽에는 이때 동아일보가 위기 극복을 위해 이승훈을 사장으로 영입하면서 동시에 홍명희를 주필 겸 편집국장으로 초빙한 것으로 설명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홍명희에 대한 연구 결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이다.

105) 위와 같음. ; 강영주의 주장은 동아일보 1주당 청약가액이 50원이었다는 점에서나 창립 주주명부에 홍명희의 이름이 없다는 점에서 틀린 주장이다.(앞의 『東亞日報社史』 권1, 90쪽)

106) 장신, 앞의 논문(2006), 263쪽.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자금난 때문이었다. 이때 구황실의 척족이던 민영달(1859-1924)이 그의 친지인 홍증식의 주선으로 일금 5천원을 출자해 급한 속간 자금을 충당했다.<sup>107)</sup>

민영달의 출자금은 그해 9월 동아일보가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사위인 홍증식의 출자분으로 정리되었다.<sup>108)</sup> 이때 410주를 취득하고 영업국장을 겸하게 된 홍증식은 김성수(937주), 신용식(900주)에 이은 3대 주주로서 행세하게 되었다.<sup>109)</sup> 그러던 중 이번 임시주총이 동아일보를 장악할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신사상연구회에서 핵심 멤버로 활동하던 홍명희와 사장 출마를 모의한 것이다.<sup>110)</sup> 출마에 필요한 주식 또한 홍증식이 제공했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sup>111)</sup> 당시 홍증식은 코민테른 극동총국 민족부 산하의 꼬르부로(高麗局) 국내부 소속이었다.<sup>112)</sup>

홍명희가 출마하자 사장 경선 판도는 급변했다. 주주들로서는 이광수의 필화사건과 박춘금 협박사건으로 인해, 동아일보의 민족 언론으로서의 이미지가 실추된 상황에서 독립운동 경력이 전혀 없는 일본 유학생 출신의 허헌이나 윤홍렬보다는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룬데다 경향 각지에서 문장으로 명망이 높았던 홍명희를 당연히 주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 (2) 남강 이승훈의 출마

홍명희가 사장 경선에 출마하면서 내부 인사인 허헌, 윤홍렬을 압도하자 김성수와 송진우는 대응책을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그때 송진우가 떠올린 사람이 이승훈이다. 이승훈은 3.1운동 때 송진우와 손잡고 전국적인 독립만세운동을 성사시킨 동지였다. 송진우의 부탁을 받은 이승훈은 2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평양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세력을 규합하고, 천도교, 불교 측과 접촉하여 3대 종교를 단일화시킴으로써, 독립만세시위를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sup>113)</sup>

이로 인해 이승훈은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최고형인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에 1922년 7월 22일 ‘최후의 1인’으로 가출옥한 3.1운동의 영웅이자 민족지도자로 추앙받던 인물이다. 당시 동아일보는 이승훈이 출옥하는 장면을 자세히 소개하고,<sup>114)</sup> 다음 날부터 곧바로 감옥생활에 대한 소회를 담은 기사를 5회에 걸쳐 보도했다.<sup>115)</sup>

107) 앞의 『東亞日報社史』, 161쪽.

108) 앞의 『독립을 향한 집념』, 302쪽.

109) 《조선은행회사요록》(1923년), 김경택, 앞의 논문, 69쪽에서 재인용.

110) 동아일보 1923년 7월 11일자 ‘신사상연구회 발기 모임’ 기사에는 발기인으로 첫 머리에 홍증식과 홍명희가 나란히 실려 있다. 신사상연구회는 1924년 11월 19일 ‘화요회’로 개칭했는데, ‘화요회’라는 명칭은 칼 마르크스의 생일이 화요일인 데서 유래되었다. 화요회는 1925년 4월 17일 1차 조선공산당 창건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홍명희는 이때도 창립 회원이자 간부로 활동했다.

111) 백운거사, 「행방 탐색 - 홍증식」, <삼천리> 제4권 제8호(1932.7), 15쪽에 “홍증식은 계략이 많고 이지적이면서 타산적인 인물이다.”고 소개되었다.

112) <동아일보> 1925.12.13(2), 「신의주 공산당사건 홍증식 씨도 압송」, 「출두 거두의 기후(其後), 제 1·2차 공산당사건의 수뇌자, 민중운동자대회사건의 수뇌자」, 《삼천리》 제6-5호(1934.5), 112-114쪽.

113) 김형석, 앞의 논문(1985), 641-654쪽.

114) <동아일보> 1922.7.22(3), 「獨立宣言事件의 一人, 最終으로 李寅煥(昇薰) 氏 假出獄」

115) <동아일보> 1922.7.23(1), 「獨司에게 바라노라, 李寅煥의 言을 聞하고」; 1922.7.25.-29, 「監獄에 對한 子의 注文(1)-(4)」

그는 출옥 후에는 평북 정주에 머물면서 오산학교 경영에 골몰하면서도 민립대학설립 운동과 연정회 등의 민족주의운동에도 간여하고 있었다.

이런 이승훈을 대하는 송진우의 태도는 깍듯했다. 1924년 2월 18일 회갑을 맞은 이승훈을 축하하기 위해서 서화첩을 만들어 보냈는데, 위창 오세창, 청전 이상범 등 당대 명가의 서화로 꾸민 서화첩의 화두에 송진우가 한글 친필로 기념사를 썼다.<sup>116)</sup> 이런 상호 신뢰가 있던 터라 송진우의 부탁을 받은 이승훈은 즉시 출사표를 던졌다. 출마에 필요한 주식은 당연히 김성수가 양도했다. 이번에도 3.1운동 때처럼 송진우가 총연출을 맡고, 이승훈이 주연 배우를 맡고, 김성수가 제작자였다. 흥명회를 내세운 흥증식과 이승훈을 앞세운 송진우 간의 지략 대결이 펼쳐진 것이다.

### (3) 이승훈과 흥명회의 역할 분담

이승훈은 주총을 불과 며칠 앞두고 뒤늦게 출마를 선언했지만 사회적인 명성이나 경력 면에서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다. 주총에서 2만4천여 표 중에서 1위에 겨우 18표 뒤진 6,235표를 얻었다.<sup>117)</sup> 사실상 1위와 다름없었다.

주총에서 투표 결과가 나오자 취체역 회의에서는 상위 득표자 2인을 놓고 선임에 나섰다. 두 사람의 경력은 대조적이었다. 흥명회는 경제활동이라곤 해본 적이 없는 30대 문필가로서 신문사 경영을 맡기에는 부적합한 인물이다. 이에 비해 어려서부터 보부상으로 자수성가하여 전국적인 거상으로 활약했던 이승훈은 유능한 기업인이다. 따라서 이승훈은 사장·전무·상무를 겸하여 경영권 일체를 맡고, 흥명회는 편집국장 겸 주필로 편집권을 갖도록 조정되었다. 두 사람이 대등한 득표를 한데다, 지명도나 경력 면에서도 다르기 때문에 중역회의 결정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다.

결과론이지만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인 이승훈이 사장으로, 청년들과 민족·사회 양 진영에 인망이 컸던 흥명회를 주필 겸 편집국장으로 앉혀놓고 이들의 명망으로 여론을 선도하며 <동아일보>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sup>118)</sup> 허헌과 윤홍렬은 취체역으로 선임되고, 영업국장 흥증식도 양원모로 교체되었다.<sup>119)</sup>

편집국장 겸 주필이 된 흥명회는 신사상연구회에서 구연흠 조동호 박현영 임원근 허정숙 등을 입사시키고, 이봉수와 조동호를 논설반에 배치했다. 이렇게 사내 개혁을 부르짖던 주체는 대부분이 외부에서 영입된 공산주의자들이었다.<sup>120)</sup>

### 3) 송진우의 언론활동과 반공주의

116) 앞의 『거인의 숨결』, 51쪽 및 앞의 『독립을 향한 집념』, 358-360쪽.

117) 경성지검 비밀문건 제566호 '동아일보사 주주총회 중역 선임에 관한 건'(1924.5.16)에 의하면, 투표 결과 "흥명회 6,253표, 이승훈 6,235표, 허헌 6,098표, 윤홍렬 6,006표"라고 기록되었다. 이 표수를 합치면 24,592표가 된다. 그런데 1921년 주식회사로 전환할 때, 자본금 70만원 중에서 1차 불입금 17만5천원에 대해 1만4천주를 발행한 것을 감안하면, 나머지는 흥증식 등이 창사 당시의 출자금에 대한 지분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118) 최만지·김민주, 앞의 책, 138쪽.

119) <동아일보> 1924.5.16(1), 「本社 臨時 株主總會」

120) 장신, 앞의 논문(2006), 270쪽.

(1) 동아일보의 경영권 안정

김성수는 송진우의 활약으로 경영권은 어렵게 지켰지만, 이 사건으로 얻은 교훈도 많았다. 동아일보를 장악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은 집요한데 비해, 1대 주주인 김성수의 지분은 6.7%에 불과했다.<sup>121)</sup> 취체역 선거 결과도 그의 뜻과 달리 홍명희가 최고 득표자였다. 이 사건을 겪은 김성수 형제는 7월 22일 950주를 대량 매수했다.

경영권이 안정되자 10월 주총에서는 김성수를 사장에 선출하고, 이승훈·송진우를 고문으로 추대했다. 이때 취체역으로 주필과 편집국장을 겸하던 홍명희는 송진우의 복귀를 끝까지 반대했다.<sup>122)</sup>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홍명희와 송진우, 김성수, 이승훈 네 사람은 특별한 인연을 가진 사이였다.<sup>123)</sup> 막역했던 이들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두 말할 나위 없이 공산주의에 대한 상반된 인식 때문이었다.

<표 4> 1924년 동아일보 경영권 투쟁에 나선 공산주의자들

성명	연령	동아일보 직책	공산주의 계열	일제강점기 주요 경력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요 경력
허헌	39	감사역 사장 대행	-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 남로당 초대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의장 김일성대학교 교장
홍명희	36	주필 편집국장	화요회	시대일보 사장 조선문학가동맹 집행위원장	내각 부수상 최고인민회의 상임부위원장
홍증식	29	영업국장 대주주	화요회	고려공산청년연합회 중앙집행위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서기국 국장, 선전부장
주종건	29	대주주	상하이파	고려공산당 간부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	사망(1935)

한편 소장 기자들의 사내 개혁운동에 동조하며 송진우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던 이상협은 신석우(1894-1953)와 제휴하여 동아일보 발행권을 인수하려다가 실패했다. 이에 신석우가 입장을 변경하여 조선일보의 판권을 매수하자, 개혁파 기자들도 대거 조선일보로 이동했는데 거의 공산주의자였다. 송진우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홍명희를 고립시켰다.<sup>124)</sup> 그러자 홍명희는 1925년 4월 시대일보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진우가 홍명희의 후임으로 복귀하였고, 김성수 일가는 계속 주식을 매집하여 1927년에는 3형제의 지분이 30.9%로 증가했다.<sup>125)</sup> 이로써 임정엽 등의 우호지분을

121) 위의 논문, 260-261쪽.

122) 앞의 『東亞日報社史』, 244-246쪽.

123) 1924년 동아일보 사장 선거의 핵심인 김성수, 송진우, 이승훈, 홍명희 4인은 특별한 인연이었다. 김성수가 홍명희를 처음 만난 것은 1908년 군산 금호학교 시절로 일본 유학을 결심한 계기가 된다. 이런 연유로 이듬 해 김성수와 송진우가 홍명희의 소개로 킨쵸우중학교(錦城中學校)에 편입하였다. (『독립을 향한 집념』, 88, 94쪽) 1924년 2월 18일 이승훈이 회갑을 맞아, 송진우는 <축하 서화첩>을 만들어 보냈는데, 이때 서화첩을 전달한 이가 홍명희다.(위의 책, 358쪽) 그로부터 3개월 후 동아일보 사장 선거에서 네 사람은 치열한 대결을 벌였다. 1926년 10월 언론계를 떠난 홍명희는 평북 정주로 이승훈을 찾아가서 오산학교 교장으로 부임한다.

124) 地檢秘 제848호, 「東亞日報ノ内訌ニ關スル件」; 장신, 앞의 논문(2006), 271쪽에서 재인용.

125) 《조선은행요록》(1923, 1927, 1929, 1931, 1939); 김경택, 앞의 글, 69쪽에서 재인용.

합하면 경영권을 확실하게 확보한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다시 사장에 취임하게 된 송진우는 1936년 11월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퇴진하기까지 10년 동안 동아일보를 이끌면서, 문맹퇴치운동, 이충무공유적 보존운동, 브나로드운동, 단군릉수축기금 모금 등을 펼치며 중흥기를 맞이하였다.

## (2) 공산주의 계열의 불매운동

3.1운동 이후 일본 유학생들을 통해 사회주의사상이 유입되는 가운데 1922년 1월 코민테른의 극동인민대표대회 개최를 계기로 서울청년회, 북풍회, 신사상연구회 등의 사회주의 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이로 인해 사회주의운동이 전체 대중운동을 장악하였으며, 청년들 사이에는 사회주의를 말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쳐진 청년으로 생각할 정도였다. 이에 대응하여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조선의 민족운동이 나가야 할 방향으로 실력양성론과 신문화운동을 주창했는데 그 중심에 동아일보가 자리했다.<sup>126)</sup>

1922년 1월 21일 '조선 유림의 영수'라는 평을 듣던 김윤식(1835-1922)이 88세를 일기로 죽자 동아일보는 일련의 사설을 통해서 그의 죽음에 '애도의 염'을 표하자고 주장하면서 사회장을 제안하였다.<sup>127)</sup> 이때 김윤식사회장을 추진하던 동아일보 중심의 민족진영에 맞서 김윤식사회장반대회를 주도한 것은 사회혁명당(서울파)·조선공산당·이르쿠츠크파 서울부로 및 '재일본 공산주의그룹' 등의 공산주의그룹이었다.

이 과정에서 동아일보비매동맹회가 결성되어 불매운동이 전개될 조짐을 보이는 등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자 유족의 요청에 따라 김윤식사회장은 중지되었고, 2월 4일 가족장으로 치렀다.<sup>128)</sup> 그러나 2월 10일 새벽 경성 곳곳에 '악덕 신문을 매장하라'는 삐라가 살포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동아일보 불매운동의 진상이다.

1923년 1월부터 동아일보는 1920년 7월 조만식, 김동원 등이 평양에서 시작했다가 일제 당국의 견제로 중단된 조선물산장려운동을 서울에서 재개했으며, 3월에는 민립 대학설립운동을 추진했다. 그리고 12월에는 김성수, 송진우, 이승훈, 최린 등이 모여 조선인의 정치활동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연정회' 결성을 시도했다. 이 같은 일련의 흐름 속에 1924년 1월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이 동아일보에 발표되었다.

1924년 4월 20일 조선노동총동맹회의에서 김종범은 "송진우가 1923년 12월 24일 연정회 조직을 계획하고, 총독부 경무국장 마루야마(丸山鶴吉)의 양해 하에 「민족적 경륜」을 게재했다고 강조하고 '동아일보 비매동맹'을 결성할 것"을 주장했다. 이것이 두 번째 불매운동의 진상이다.<sup>129)</sup>

이 때문에 민족주의 우파 지도자들 가운데는 송진우가 유독 공산주의에 대해 강한

126) 이지원, 앞의 논문(2004), 155-157쪽.

127) <동아일보> 1922.1.23.(1), 「雲養先生の 長逝를 悼하노라, 朝鮮의 文章 社會의 元老」; <동아일보> 1922.1.26(1), 「雲養先生 葬送에 對하여 感激하는 社會가 必要」; <동아일보> 1922.1.27(1), 「實地에 就하라 徹底하라, 朝鮮人의 結점을 論함」; <동아일보> 1922.1.30(1), 「朝鮮政治家의 缺乏, 實地的 聰明이 必要」; <동아일보> 1922.1.31(1), 「人物批判의 標準」

128) 박종린, 「'김윤식사회장' 찬반논의와 사회주의세력의 재편」, 《역사와 현실》 38호(2000), 257-262쪽

129) 김종범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윤덕영, 앞의 논문 2010d, 33-34, 37쪽) 1920년대 전반 동아일보 계열의 문화주의에 내포된 사회사상도 장덕수-송진우를 중심으로 하는 입장과 이광수의 「민족개조론」 사이에는 분명한 입장의 차이가 있었다.(김명구, 앞의 논문, 183-84쪽.)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소위 ‘1924년 동아일보 개혁운동’ 당시 친일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좌, 우에서 공격을 당한데다가, 동아일보 경영권을 둘러싼 사장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사내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전술과 그들의 행동을 보고 느낀 것들로 인해, 이후부터 공산주의에 대해 깊이 고찰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 (3) 일제강점기 송진우의 민족운동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송진우의 행적은 네 차례에 걸쳐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세 차례 구속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으며, 도합 27개월의 옥고를 치른 것으로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에 국내에서 활동하던 민족지도자로서 그만큼 법적 제재를 자주 받은 경우도 찾기가 어렵다.

<표 5> 송진우의 항일운동과 법적 제재

일시	내용	결과
1919. 3. .	3.1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 후 고문, 재판(미결 감)	20개월 투옥
1926. 3. 7.	3.1절 7주년 축사 게재 혐의로 인한 필화사건, 무기정간 조치	징역 6개월
1936. 8.29.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무기정간, 소환 조사	사장 사임
1940. 7. .	일본에서 귀국길에 부산에서 피검, 종로경찰서에 1개월 구금	강제 폐간

그뿐 아니라 독립군에 자금을 보내고 독립운동가의 가족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다. 구체적인 사례로 청산리전투의 영웅 김좌진(1889-1930) 휘하에서 독립운동에 참가한 이강훈(1903-2003) 전 광복회장은 김좌진이 송진우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네 차례나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동아일보를 세운 인촌 김성수는 송진우 동아일보 사장을 통해 김좌진 장군에게 1만원 가량 모두 네 차례 군자금을 보내 왔다. ▲1926년 5월 모란역에서 6천원 ▲1928년 9월 돈화현 ‘얼토랴쯔’에서 상당 액수 ▲1929년 2월 만주의 산시(山市)에서 소만(蘇滿) 국경으로 본부를 이동하려 할 때 1만원 ▲1930년 1월 27일 김좌진 장군이 돌아가자 만장과 함께 일화(日貨) 10원짜리로 1만원 등 확실히 기억하는 것만도 네 차례다. 이 밖에도 고하가 다른 독립운동 단체에도 비밀리에 자금을 송금했을 가능성이 짙다.<sup>130)</sup>

1940년 8월 10일 조선총독부는 동아일보를 강제 폐간시키자, 동아일보는 송진우를 대표 청산위원에 선임하여 대응하였다. 이어 1943년 1월에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청산 위원회를 해체하고, 주식회사 동본사(東本社)를 설립하자 다시 사장에 선출되었다.

한편 1940년 조선총독부가 창씨개명을 강요하자 송진우는 이를 한사코 거절하였다. 그해 10월 일제가 국민총력연맹을 발족시킨 뒤에는 병으로 전신을 움직일 수 없다는

130) <동아일보> 1990.4.1. - “광복회 회장 이강훈 옹 동아 인연 70년, 송진우 사장이 거액의 군자금을 김좌진 장군에게 주었다.” ; 이강훈, 『이강훈 역사증언록』, (인물연구소, 1994), 262쪽.

이유로 협력을 회피하였고, 1941년 12월 8일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서 총독부로부터 학도병 권유 유세 등을 강요받았을 때도 병을 핑계로 불응하였다. 이렇게 송진우는 동아일보가 폐간된 후부터 해방이 될 때까지 사실상 모든 정치·사회활동을 중단했다.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제의 황국신민화 정책으로 대다수 지도층 인사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전락했지만, 누구보다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송진우는 총독부의 강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친일단체 가입은 물론 많은 사람이 참여한 친일 논설이나 강연, 인터뷰조차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이처럼 송진우는 자기 주관과 소신이 확고한 태도를 보여주었기에 해방이 되자 민족지도자로 부각될 수 있었다.<sup>131)</sup>

#### IV. 송진우와 해방 직후의 건국운동

송진우가 해방공간에서 특히 주목받는 것은 총독부가 1945년 8월 15일 여운형에게 조선반도의 치안을 맡아 줄 것을 부탁하기 이전에, 먼저 송진우에게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주장 때문이다. 그동안 언론은 물론 학계에서도 이 주장의 진위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는데,<sup>132)</sup> 최근 이 사실을 뒷받침할 의미 있는 증언이 발굴되었다.<sup>133)</sup>

##### 1) 국민대회준비회의 결성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여운형·박헌영·안재홍 등이 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를 선포하자 송진우는 '건준'에의 참여를 거부하였다. 주위의 정당 참여 권유에 대해서도 정세를 신중하게 관망하던 송진우는 연합군의 상륙 소식이 알려진 8월말에야 비로소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가 이런 태도를 취한 것은 상황이 불투명하고 연합군의 한반도 처리 지침과 독립국가 건설의 전망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9월 4일 '임시정부 및 연합군 환영 준비회'가 열릴 때까지도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던 그는 7일 국민대회준비회(이하 '국준')를 발족하여 민중의 총의를 확인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그 전날인 6일 밤 '건준'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소집하여 조선인민공화국(이하 '인공') 수립을 선언하자,<sup>134)</sup> 송진우는 '인공'을 정부를 참칭한 반역 집단으로 지적하고 이를 주도한 박헌영과 여운형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어서 7일

131) 윤덕영, 앞의 논문(2012), 253-254쪽.

132) 총독부 관계자의 고하 접촉설은 1959년 김준연의 『독립노선』(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4쪽)에 처음 소개되었고, 1965년에 간행된 『고하 송진우 선생 전』에도 소개되었다. 그러던 것을 1986년 진덕규가 <대학신문>에 기고한 「좌·우익 대결과 민족운동의 의미」에서 “김준연이 지어낸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1990년 김학준이 『독립을 향한 집념』에서 총독부의 고하 접촉설을 다시 서술하였는데, 1999년 윤덕영이 또다시 반론을 제기하였다.(『고하 송진우의 생애와 활동』, 139-140쪽)

133) 송상현, 앞의 증언, 419-421쪽. ; 송상현에 의하면, “1945년 8월 11일 경기도 지사 이쿠다(生田)가 송진우의 집을 찾아와 치안 협조를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그를 수행한 경찰부 수사보안과장 전봉덕(1910-1998)이 찾기에 송상현을 걸어차는 바람에 폭행을 당했다”는 아주 구체적인 증언이다.

134) 여운형, 「조선인민공화국의 발족」, 《白民》 창간호(1945.12), 18쪽. ; 이때 '인공'이 내세운 이유는 “연합군과 절충할 인민 총의의 결집체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고 한다.

결성된 국민대회준비회의의 위원장을 맡게 된 그는 중경 임시정부 절대지지, 민족역량 총집결을 위한 국민대회 개최를 주장하며 우파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때부터 ‘국준’은 ‘인공’과 정국의 주도권을 놓고 예리하게 대립하였다. 송진우는 서울에 진주한 후에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한 하지(John Reed Hodge, 1893-1963) 사령관과 만나 자신의 포부와 의견을 제시하고 ‘인공’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 그러나 ‘국준’은 정당이 아니었기에 새롭게 창당하는 한국민주당(이하 ‘한민당’)에 합류했다. 보다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위해 그동안 관망하던 태세를 떨쳐버린 것이다.<sup>135)</sup>

‘한민당’에서도 대표자(수석총무)가 된 송진우는 ‘국준’을 그대로 존속시켰는데 해외 망명 동지들이 환국한 다음에 완전히 독립된 협의체로 재편성하여 활용할 심산이었기 때문이었다. ‘국준’은 10월 20일 중앙청 광장에서 연합군 환영대회를 개최했으며,<sup>136)</sup> 12월 19일 서울운동장에서 임시정부 개선대회를 개최했다.<sup>137)</sup> 이때 송진우가 임정을 절대 지지한 것은 임시정부가 중심이 되어 한민족의 자주독립역량을 국외에 선양하여 조속히 연합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 2) 한국민주당의 창당

송진우가 ‘국준’을 결성한 다음 날인 9월 8일 고려민주당·조선민족당·한국국민당의 인사들은 해방 직후부터 ‘날뛰는 적색분자’들을 분쇄하기 위해서 우익 진영의 단결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우고 합당 준비에 나섰다.<sup>138)</sup> 이어서 16일에는 ‘인공’에 대항할 정치세력으로 임정의 정통성을 토대로 한 650명이 발기하여 ‘한민당’을 창당했다.<sup>139)</sup>

당의 영수로는 이승만·김구·이시영·문창범·서재필·권동진·오세창 등 7인을 추대하고, 당무를 맡아 볼 총무로 송진우(전남), 백관수(전북), 허정(경남), 서상일(경북), 조병옥(충청), 김도연(경기), 김동원(평안도), 원세훈(함경도), 백남훈(황해도) 9인을 선출했다. 송진우는 처음에 국민대회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참석을 고사하였지만, 이미 ‘인공’이 내각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나서자, 수석총무를 맡아 사실상 한민당을 이끌었다.

한민당은 5대 강령을 실천 목표로 내세웠는데, ①조선 민족의 자주독립국가 완성을 기함 ②민주주의의 정체 수립을 기함 ③근로 대중의 복지증진을 기함 ④민족 문화를 양양하여 세계 문화에 공헌함 ⑤국제헌장을 준수하여 세계 평화에 기함 등이다.<sup>140)</sup>

한편 한민당의 정치노선은 공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민주주의적인 독립 한국을 건설하고, 중경임시정부를 법통상 근본으로 하는 정식 정부를 수립하고, 민주정치적 건전한 운영을 위한 정당을 조직하고, 모든 계층을 망라한 국민적 정당을 추구한다는 것이다.<sup>141)</sup> 이처럼 한민당은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강령과 정책을 표방하고, 미군정의

135) 심지연, 『해방 정국의 정치이념과 노선』, (백산서당, 2013), 26-27쪽.

136) <매일신보> 1945년 10월 20일자.

137) <동아일보> 1945.12.20(1), 「臨時政府 歡迎辭(宋鎮禹)」

138) 백남훈, 「한국민주당 창당 비화」, 《真相》 1960년 4월호, 15쪽.

139) 함상훈, 「한국민주당의 정견」, 《大湖》 제1권 2호(1946.7), 22쪽.

140) 심지연, 앞의 책, 47-50.

141) 송인국, 「해방 초기 한국 정치 엘리트의 정치적 갈등에 관한 연구 - 여운형의 ‘건준’과 송진우의 ‘한민당’을 중심으로」, 《공주교대 논총》 제23권 1호(공주교육대학, 1987), 38-40쪽.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미국의 대한정책은 물론이고 대외정책에 적극 호응했다.<sup>142)</sup>

송진우가 한민당을 이끌며 취한 노선은 한마디로 현실주의였다. 1945년 12월 신탁통치문제가 대두되면서 전국적으로 반탁운동이 일어나자, 그 방법론을 놓고 견해차를 보였다. 임정 요인들은 신탁통치를 식민통치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고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대를 주장한데 비해, 송진우는 정치적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진 정치기법을 배우는 정치훈련으로 인식하면서 신중한 대응을 주장했다. 그가 훈정설을 주장한 것은 미군정과의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현실론에 기인한 것이다.<sup>143)</sup> 그러나 한편으로 이것은 반대파에게 그를 배척할 수 있는 명분이 되었다.

한국민주당 당수 송진우는 “우리 민족이 근대 국가와 민주정치를 가져보지 못하였으므로, 선진국의 지도를 받아야 할 것이니 신탁통치는 선진국의 지도를 받는다는 훈정의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용납될 수 없는 망상이다.<sup>144)</sup>

### 3) 동아일보의 복간

‘한민당’은 출범과 동시에 동아일보사 광화문 사옥을 당사로 제공 받아 사용하였다. 수석총무에 취임한 송진우는 당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징수할 계획을 세웠으나,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 당 운영비는 물론 지방당 조직에 지출되는 자금까지 김성수에게 의존하게 되었다.<sup>145)</sup> 이에 송진우는 11월 중순 하지 사령관과 회동하는 자리에서 동아일보의 복간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급팽창해진 좌익 언론에 대항할 수 있는 우익 언론의 필요성을 느끼던 미군정에서는 동아일보의 복간을 허가하고, 경성일보의 인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었다.

그 결과 1945년 12월 1일 동아일보가 복간되고 송진우가 사장에 취임했다. 이것은 현실주의자 송진우가 미군정에 협력을 선언한데 대한 ‘정치적 대가’이었다. 동시에 ‘종이에 먹칠하는 것이 그의 일생에 사업’이던<sup>146)</sup> 송진우의 입장에서는 한민당의 수석총무를 맡으면서도 동아일보 복간에 힘써 사장을 겸직하게 된 것이다.

동아일보는 중간사(重刊辭)에서 이렇게 천명하였다.

우리의 독자성을 고조하여… 민족의 완성과 민족문화의 완성을 기하며… 민주주의에 의한 여론정치를 지지하며… 사회정의의 구현을 기약하여 기회균등의 이상사회 실현을 추진하며… 자주호혜의 정신으로 국제민주주의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sup>147)</sup>

송진우가 사장으로 있는 동아일보와 그가 수석총무로 있는 한민당 사이에는 견해 차이가 있어 종종 충돌이 일어났다. 한민당은 동아일보를 당 기관지로 생각한데 비해,

142) 심지연, 『한국민주당 연구』, (풀빛, 1982), 123쪽.

143) 심지연, 앞의 책(2013), 42-45쪽.

144) 한현우, 「암살전야」, 《세대》(1975.1), 233쪽.

145) 이상돈, 「정통 야당으로 본 정치지도자상」, 《신동아》 208호(1981.12), 283-284쪽.

146) 임병철, 앞의 글, 27쪽.

147) <동아일보> 1945.12.1(1), 「重刊辭 主旨을 宣明함」

동아일보는 언론으로서의 고유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기사는 전반적으로 한민당의 정책에 호의적인 논조를 실어 한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인해 다른 정치인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 같은 현상은 송진우가 복간된 동아일보 사장으로 취임한지 한 달 만에 피살당하고, 이후 동아일보 사주인 김성수가 한민당을 이끌게 되면서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 4) 공산주의자들과의 대결

송진우가 동아일보 경영의 전권을 갖고 활동하던 시절, 그에게는 일본 제국주의의 언론 탄압과 공산주의자들의 퇴진 공격이 항상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다. 따라서 ‘항일 독립’과 ‘반공’은 송진우의 민족운동을 이해하는 두 개의 키워드다. 1921년 9월 15일 그가 제3대 사장에 취임할 당시 동아일보는 공산주의사상을 전파하는 선전장이었다. 이 시기는 1925년 4월 17일 조선공산당이 결성되기 이전의 사상운동·청년운동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때로, 동아일보에 공산주의 관계 논·사설이 게재되고 있었다.<sup>148)</sup>

1925년 6월 하와이에서 개최된 제1회 범태평양회의에 동아일보 특파원 자격으로 참석한 송진우는 귀국 직후에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라는 제목의 논설을 15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연재하였다.<sup>149)</sup>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개될 세계사의 흐름에 주목하면서, 결국 자본주의의 모범인 미국과 사회주의의 대표인 적로(赤露, 공산주의 러시아)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경합할 것이라고 예언했다.<sup>150)</sup> 그리고 1927년에는 가까운 장래에 중국이 공산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sup>151)</sup> 이어 1932년 발표한 「자유권과 생존권」에는 러시아 인민이 생존권을 보장 받고도 자유가 없어서 불평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공산주의를 비판했다.<sup>152)</sup>

이렇게 송진우가 공산주의를 분명히 거부한 것처럼, 공산주의 계열에서는 송진우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그들의 논조는 송진우를 친일파로 매도하고 도덕적으로 매장 시키는데 집중하면서, 감정적이고 원색적인 인신공격성의 표현으로 독자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전형적인 선전선동이였다.

동아일보의 송진우는 사주 김성수의 막강한 금력을 배경으로… 스스로 정치가를 자임하고 추근추근한 성근(誠勤)이라든지 노력이라도 회를 처먹는 듯한 비위로 이해의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특징이라든지(하략)<sup>153)</sup>

한편 사회주의 논객들은 송진우가 주도한 이층무공유적보존운동에 대해 동아일보가 고적보존운동을 전개하며 필세를 세워 공장과 농촌에서 ‘피땀으로 번 돈’을 성금으로 착취하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족주의자들의 부르주아적

148) 유재천, 앞의 논문(1989), 205쪽.

149) 송진우,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1)-(15)」, <동아일보>, 1925.8.28.-9.6.

150) \_\_\_\_\_,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8)」, <동아일보>, 1925.9.4(6).

151) \_\_\_\_\_, 「가능성은 있다」, 《新民》 24호(1927.4), 46쪽.

152) \_\_\_\_\_, 「자유권과 생존권(하)」, <동아일보>, 1925.1.15(1).

153) 황태욱, 「조선 민간 신문계 총평」, 《개벽》 신간 4호(1935.3), 19쪽.

계급성을 공격하였다.<sup>154)</sup> 1937년 6월 2일 동아일보에 대한 정간처분이 해제된 후에 신문이 재발행 되었는데, 이때부터 일제의 극단적 탄압으로 ‘압수 아니 되는 사설’을 집필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사회주의 논객들은 그것마저 송진우의 고집 탓이라고 비방하였다.<sup>155)</sup>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는 그들이 공산주의를 확산하는데 중요한 장애물로 반드시 제거해야 대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송진우와 공산주의자들의 뿌리 깊은 갈등과 불신은 해방 정국에서 새 국가 건설의 강력한 경쟁자로 나타난다. 송진우가 정치일선에 뛰어들게 된 것은 좌파와의 대립이 본격화되면서부터였다. 그는 ‘국준’을 좌파의 ‘인공’ 선포에 대응하여 우파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키는 조직으로 상정하고, 한민당은 ‘국준’의 노선과 행동통일을 담보하는 정치적 중심세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반공주의자 송진우의 정치적 노선은 9월 8일 남한에 진주한 미군정이 자신만이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포한 것을 계기로 미군정의 주요 파트너가 되었다. 그러나 송진우가 미군정의 정책을 그대로 대변하는 종속적 존재가 된 것은 아니고, 자기 입장에서 미군정을 바라보고 자신의 판단위에서 주동적으로 협력했다.<sup>156)</sup>

송진우의 정치여정에서 마지막 사건이 된 신탁통치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미군정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송진우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신탁통치를 결정한 국무부의 입장과는 달리 맥아더 사령부와 남한의 미군정은 신탁통치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당시 대부분의 국내 정치세력이 이런 사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파세력은 3상회의 결정에 즉각 반대하고 나섰고, 특히 임정측은 극단적으로 반발했다. 그러나 그는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입장에 선 미군정과 맥아더 사령부를 적으로 돌리기보다는 이들과 연합하여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킴으로써 미국의 외교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3상회의 결정이 불가피하게 실시될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점에서 송진우의 입장은 반탁이지만, 미군정과 극렬한 대립을 초래하는 반탁 운동은 명백히 반대하였고, 더욱이 미군정을 부정한 임정의 행동에 대해서는 대단히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했다. 반탁운동을 둘러싼 송진우와 임정 측의 마찰의 초점으로, 이들의 마찰은 반탁과 찬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반탁운동을 전개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송진우는 이렇게 임정 측과 마찰을 빚고 있던 중에 갑자기 피살되었다.<sup>157)</sup>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후 그해 12월 30일 세상을 떠나기까지 127일간의 행적을 두고 ‘역사적 인물’ 송진우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존재한다. 그 가운데 원로 정치학자 심지연의 평가는 주목할 만하다.

한민당을 이끌던 송진우는 4개월의 짧은 기간 밖에 활동하지 못하고 피살당하고 말았지만, 그가 다진 터전 위에서 한민당이 성장했고, 일제강점기에 폐간되었던 동아일보가 속간되고,

154) 「이충무공묘소비판문제」, 《비판》(1931.6), 19-22쪽.

155) 「문제 인물의 문제-고집, 고집, 고집불통 송진우」, 《第一線》2권 6호(1932.7), 80쪽.

156) 윤덕영,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근대국가 건설의 꿈 - 송진우」, 『역사의 길목에 선 31인의 선택』, (푸른역사, 2000), 315-316쪽.

157) 위의 책, 319-320쪽.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에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송진우 개인 노력만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그의 리더십에 기인한바 컸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sup>158)</sup>

## · 결론

한국민족운동사에서 송진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의 문제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송진우와 해방 직후에 새 국가 건설에 앞장선 자유민주주의자 송진우에 대한 역사적 평가로 가늠할 수 있다.

먼저, 독립운동가 송진우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살펴보자.

그동안 송진우에 관한 10여 편의 논저를 발표하여 역사학계에서 ‘송진우 연구가’로 인정받는 윤덕영은 독립운동가 송진우에 관하여 이렇게 평가한다.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송진우는 총독부의 강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친일단체 가입은 물론 많은 사람이 참여한 친일 논설이나 강연, 인터뷰조차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이처럼 송진우는 자기 주관과 소신이 확고한 태도를 보여주었기에 해방이 되자 민족지도자로 부각될 수 있었다.<sup>159)</sup>

이에 대해 한국현대사 전문가인 박태균은 송진우의 친일행적을 이렇게 설명한다.

송진우는 1930년대에도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민족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으나 일본 제국 주위의 탄압이 거세지면서, 그는 활동을 거의 중지하게 되었다. 그 스스로의 자의에 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는 1943년 1월에 학병 동원 연설을 하였고, 조선언론보국회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일정 정도의 친일행위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제 말기까지 친일 활동을 하지 않았던 여운형·김병로·이극로 등과 친분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아 적극적인 친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sup>160)</sup>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삼웅이 『친일파 100인 100문』에서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조선급만주》(朝鮮及滿洲)라는 잡지에 실린 송진우의 인터뷰 기사를 친일 행위라고 주장한 것이 유일하다.<sup>161)</sup> 그런데 그 기사를 살펴보면, ‘합법적인 틀 안에서 언론의 자유’를 설명한 것으로 친일 행위라고 볼만한 내용이 아니다. 또 언론보국회에 참여했다는 주장은 원세훈의 책에 근거한 것이다.<sup>162)</sup> 그런데 송진우는 언론보국회에 참여한 적이 없고 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예회원으로

158) 심지연, 앞의 책(2013), 12-13쪽.

159) 앞의 주)131과 같음.

160) 박태균, 『현대사를 베고 쓰러진 거인들』, (지성사, 1994), 29쪽.

161) 김삼웅, 『친일파 100인 100문』, (돌베개, 1995), 71쪽.

162) 송남헌, 『시베리아의 투사 원세훈』, (천산산맥, 1990), 111쪽

추대되었을 따름이다. 한편 원세훈이 송진우에 대해 불만을 갖게 것은 그가 하지에게 미군정청의 경무부장으로 조병옥을 추천한데 대한 앙심을 품고 한민당을 탈당했다는 주장도 있다.<sup>163)</sup> 이상에서 박태균의 주장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한다.

이처럼 송진우는 3.1운동을 주도하고 동아일보 사장으로 문화운동을 이끄는 가운데 세 차례 구속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으며, 도합 27개월의 옥고를 치루면서도 끝까지 지조를 변치 않은 독립운동가다. 그가 이끈 중앙학교의 3.1운동은 그동안 '이승만의 3.1운동 기획 설'과 맞 물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지만, 그 허물을 벗기고 난 이후 모습은 3.1운동의 실상과 정확히 일치한다. 중앙학교는 3.1운동의 책임지이자, 송진우·현상윤·김성수 3인은 전국적·거족적 운동으로 단일화하는데 중심 역할을 담당했다. 이런 점에서 그는 48인의 민족대표이지만, 실제로는 3.1운동의 기획자이자 연출자였다.

다음으로 자유민주주의자 송진우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자.

정치학자 강원택은 송진우에 대해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와 해방 이후 폭발한 국내의 민족주의적 열정을 모두 가지고, 다른 이념의 정치세력과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하던 자유민주주의자라고 평가한다. 송진우는 정치적으로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분명한 거부를 표명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온건한 좌파들과도 상당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유연한 태도를 가졌던 포용력이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sup>164)</sup>

이에 대해 진보언론인인 최민지와 김민주는 송진우를 무자비한 독재자로 묘사한다. 1924년 개혁운동 당시 기자를 동역자, 민중의 공기에 종사하는 사회적 공인으로 보지 않고, 신문사를 민중의 것으로 보지 않으며,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보고 기자를 단순한 고용인으로 보았다고 주장한다.<sup>165)</sup> 그런데 소위 '1924년의 동아일보 언론개혁'은 그 실체를 따져보면 경영진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라 공산진영과 민족진영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었고, 거기서 패배한 일군의 소장파 기자들이 편집국장 이상협을 따라 조선일보로 대거 이직한 사건이다. 따라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두 사건을 단순 비교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송진우와 동시대를 살았던 언론인들이 그를 향해 부르던 애칭이 '조선의 정객'이다. 그만큼 국제정세에 밝고 국내문제에 탁월한 정치력을 보여주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같은 그의 능력은 해방 공간의 정치현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해방을 목전에 둔 시점에 총독부로부터 조선반도의 치안권 이양을 거부했던 그는 해방이 된 후에도 신중하게 사태를 관망하던 중, 건국준비위원회의 조선인민공화국 수립 소식을 듣고 정치활동에 나서게 되었다.

1945년 9월 7일 국민대회준비회를 시작으로 16일 한국민주당을 창당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민족주의 우파 세력을 규합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운동에 나섰다. 미군정과 협력하면서 이승만과 김구의 국내 안착을 도와 공산주의세력의 독주를 막아 내는데 크게 기여했다. 12월 1일 일제에 의해 강제 폐간되었던 동아일보를 복간하고

163) 심지연, 「송진우와 한민당」, 《월간 조선》, 65호(1985.8), 451쪽.

164) 강원택, 「해방 후 고하 송진우의 정치 구상」, 《송진우 선생 서거 70주기 추모 학술세미나 자료집》,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2015), 74쪽.

165) 최민지·김민주, 앞의 책, 140-41쪽.

한민당 수석총무와 동아일보 사장을 겸하게 된 그는 신탁통치문제에 대응하여 신중한 반탁운동을 주장하다가 12월 30일 피살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가 해방 후 127일간 보여준 보국헌신의 열정이 자유 대한민국 건설의 초석이 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 ■ 참고 문헌

### 1. 단행본

- 고하송진우선생전기편찬위원회 편, 『고하 송진우 선생 전』, 동아일보사, 1965.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독립을 향한 집념』, 재단법인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2022.  
\_\_\_\_\_, 『거인의 숨결』, 이야기의숲, 2023.  
권오기 편, 『인촌 김성수의 애족사상과 그 실천』, 동아일보사, 1982.  
김삼웅, 『친일파 100인 100문』, (돌베개, 1995)  
김상만, 『동아일보사사(東亞日報社史)』 권1, 동아일보사, 1975.  
김정수, 『초대 대통령 이승만 1 - 개화와 독립』, 청미디어, 2013.  
김학준, 『고하 송진우 평전 : 민족민주주의 언론인·정치가의 생애』, 동아일보사, 1990.  
김형석, 『끝나야 할 역사전쟁』, 동문선, 2021.  
동아일보사 편, 『東亞日報社史』 권1, 동아일보사, 1975  
동아일보80년사 편찬위원회, 『민족과 더불어 80년』, 동아일보사, 2000.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 연구 - 민족주의 우파의 실력양성운동론』, 역사비평사, 1992.  
박태균, 『현대사를 베고 쓰러진 거인들』, 지성사, 1994.  
서대숙, 현대사연구회 역, 『한국공산주의운동사연구』, 이론과실천, 1985.  
신용하,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사회사』, 서울대 출판부, 2001.  
심지연, 『한국민주당 연구』, 풀빛, 1982.  
\_\_\_\_\_, 『해방 정국의 정치이념과 노선』, 백산서당, 2013.  
여효규 외, 『역사의 길목에 선 31인의 선택 : 삼국시대부터 해방 공간까지 전환기의 인물들』, 푸른역사, 1999.  
유영익, 『이승만의 삶과 꿈 ; 대통령이 되기까지』, 중앙일보사, 1996.  
윤경로, 『105인 사건과 신민회 연구』, 일지사, 1990.  
이경남, 『설산 장덕수』, 동아일보사, 1981.  
이병헌, 『3.1운동 비사』, 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이승렬, 『근대 시민의 형성과 대한민국』, 그물, 2022.  
이영일, 『건국사 재인식』, 동문선, 2022.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해안, 2007.  
인촌기념회 편, 『인촌 김성수 전』, 동아일보사, 1976.  
조용만·송건호·박병채, 『일제하의 문화운동사』, 현음사, 1982.  
채백, 『한국 언론 수용자 운동사』, 한나래, 2005.  
최민지·김민주 공저, 『일제하 민족언론사론』, 일월서각, 1978.  
한국사학회 편, 『한국현대인물론』 I, 을유문화사, 1987.

## 2. 논문

- 강영주, 「벽초 홍명희 : 3.1운동에서 신간회운동까지」, 《역사비평》 26호(1994 봄)
- 김경택, 「1910·20년대 동아일보 주도층의 정치경제사상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9)
- 김기주, 「고하 송진우의 민족교육사상과 교육활동」, 《전남사학》 11집(전남사학회, 1997.12)
- 김도형, 「1930년대 '이충무공유적보존운동'의 전개와 그 성격」, 《이순신연구논총》 15호(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1.6)
- 김명구, 「1920년대 국내 부르주아민족운동 우파계열의 민족운동론: <동아일보> 주도층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20집(도서출판 한울, 2002. 봄)
- 김일수, 「한말·일제강점기 윤필오·윤홍열·윤우열 삼부자의 사회활동과 그 의미」, 《한국학논집》 71집(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8.6)
- 김주식, 「1930년대 이충무공유적보존운동의 전개와 한계」, 《이순신연구논총》 제37호(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22.12)
- 김형석, 「남강 이승훈 연구 : 1920년대의 민족운동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38.(한국사학회, 1984)
- \_\_\_\_\_, 「남강 이승훈 연구 : 3.1운동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46·47·48집.(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5)
- 박종린, 「'김윤식사회장' 찬반논의와 사회주의세력의 재편」, 《역사와 현실》 38호(2000)
- 심재욱, 「1920~30년대 초 고하 송진우의 사상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2집(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1999.9)
- 심지연, 「고하 송진우」, 한국사학회 편, 『한국현대인물론』, (을유문화사, 1987)
- 송인국, 「해방 초기 한국 정치 엘리트의 정치적 갈등에 관한 연구 - 여운형의 '건준'과 송진우의 '한민당'을 중심으로」, 《공주교대 논총》 제23권 1호(공주교육대학, 1987)
- 유재천, 「일제 하 한국 신문의 공산주의 수용에 관한 연구(1)」, 《동아연구》 7집, (서강대 동아연구소, 1986.3)
- \_\_\_\_\_, 「일제 하 한국 신문의 공산주의 수용에 관한 연구(3)」, 《동아연구》 18집, (서강대 동아연구소, 1989.6)
- 윤덕영, 「고하 송진우의 생애와 활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현대사인물연구》 2, (백산서당, 1999)
- \_\_\_\_\_, 「일제하 해방 직후 동아일보 계열의 민족운동과 국가건설 노선」,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8)
- \_\_\_\_\_, 「1920년대 전반 민족주의세력의 민족운동 방향 모색과 그 성격 : 동아일보 주도세력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98호(국사편찬위원회, 2010.6)
- \_\_\_\_\_, 「1920년대 중반 민족주의세력의 정세인식과 합법적 정치운동의 전망 : 동아일보 주도세력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53집(한국근현대사학회, 2010년 여름)
- \_\_\_\_\_, 「1920년대 전반 동아일보 계열의 정치운동 구상과 '민족적 중심세력'론」, 《역사문제연구》 24, (역사문제연구소, 2010.10)
- \_\_\_\_\_, 「1930년대 동아일보 계열의 정세인식 변화와 배경 : 체제 비판에서 체제 굴종으로」, 《사학연구》 제108호, (국사편찬위원회, 2012.2)
- 이지원, 「일제하 민족문화 인식의 전개와 민족문화운동 : 민족주의 계열을 중심으로」, (서울대

- 학교박사학위논문, 2004)
- \_\_\_\_\_, 「1930년대 민족주의 계열의 고적보존운동」, 《동방학지》 제77·78·79합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3.6)
- 장신, 「1930년대 언론의 상업화와 조선·동아일보의 선택」, 《역사비평》, 통권 70호(2005. 봄)
- \_\_\_\_\_, 「1924년 동아일보 개혁운동과 언론계의 재편」, 《역사비평》, 통권 75호(2006. 여름)
- \_\_\_\_\_, 「조선총독부의 언론 통제와 동아일보·조선일보 폐간」, 《역사문제연구》, 통권 35호(역사문제연구소, 2016.4)
- 정병준, 「중국 관내 신한청년당과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제65집, (2019.1)
- 정진석, 「언론 경영인으로서의 고하 송진우」, 《동서언로》, 제9호(1997.12)
- \_\_\_\_\_, 「일제하의 언론·출판 연구 : 일제의 언론정책을 통해 본 한인·일인의 신문·잡지·단행본 발행 실태 비교」, 《신문연구》, 제27집, (관훈클럽, 1978.10)
- 최형련, 「3.1운동과 중앙학교」, 『3.1운동50주년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69.

### 3. 신문, 잡지, 논설, 기사

《동아일보》 기사

《조선일보》 기사

《신한민보》 기사

《매일신보》 기사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고하 송진우 선생의 항일독립운동과 건국에 관한 이념과 사상》, (고하송진우선생 추모 학술 세미나, 2015.10)

「동아일보사 20년사」, 《삼천리》, 제12권 8호(1940년 9월호)

「인재 순례 - 제1편, 신문사측」, 《삼천리》 제4호(1930년 1월호)

김병로, 「언론계의 지보 송진우 씨」, 《삼천리》 7-3(1935.3)

백남훈, 「한국민주당 창당 비화」, 《眞相》 1960년 4월호

백릉,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 씨 면영」, 《혜성》, 1권 1호(1931.3)

백악산인, 「복면객의 인물평 - 권토재래의 이상협 씨」, 《삼천리》 10-12(1938.12),

백운거사, 「행방탐색 - 흥증식」, 《삼천리》 제4권 제8호(1932.7)

송상현, 「古下는 해방 후 혼란 속에 자유민주주의 기초 닦은 巨人」, 《월간 조선》, (2023.12)

송진우, 「최근의 감(感), 무엇보다도 힘」, 《개벽》 46호(1924.4.1)

\_\_\_\_\_, 「자유권과 생존권」, 《동아일보》, 1925.1.15.

\_\_\_\_\_,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 《동아일보》, 1925.9.4.

\_\_\_\_\_, 「가능성은 있다」, 《新民》 24호(1927.4)

\_\_\_\_\_, 「재외동포와 번역」, 《삼천리》 14(1931.4)

여운홍, 「파리강화회의에 갔다가」, 《삼천리》 제10호(1930.11)

\_\_\_\_\_, 「혈버트 박사와 나」, 《민성》, (1949.10)

유광렬, 「신문 독재자 송진우론」, 《삼천리》 제4권 9호(1932.9)

이광수, 「김성수론」, 《동광》 제25호(1931.9)

이돈화, 「조선 신문의 특수성과 그 공과」, 《개벽》 1935년 3월호

이상돈, 「정통 야당으로 본 정치지도자상」, 《신동아》 208호(1981.12)

임병철, 「인물 소추 : 송진우」, 《신천지》 1권 1호(1946.2)

한양학인, 「조선신문론」, 《동방평론》 제2호(1932.5)  
한현우, 「암살전야」, 《세대》 (1975.1)  
함상훈, 「한국민주당의 정견」, 《大湖》 제1권 2호(1946.7)  
현상윤, 「3.1운동의 회상」, 《신천지》 1-2호(1946.3)  
\_\_\_\_\_, 「3.1운동 발발의 개략」, 《신천지》 5-3호(1950.3)  
\_\_\_\_\_, 「3.1운동 발발의 개략」, 《사상계》 11-3호(1963.3)  
황석우, 「나의 팔인관」, 《삼천리》 제4권 4호(1932.4)  
황태욱, 「조선 민간 신문계 총평」, 《개벽》 신간 4호(1935.3)

■ 고하 송진우 선생 특별 학술회의

# ‘한국 민족운동사에서 본 고하 송진우’ - ‘독립’과 ‘자유민주국가 건설’을 이끈 선구자 -

2024. 2. 19.



## ■ 고하 송진우 주요 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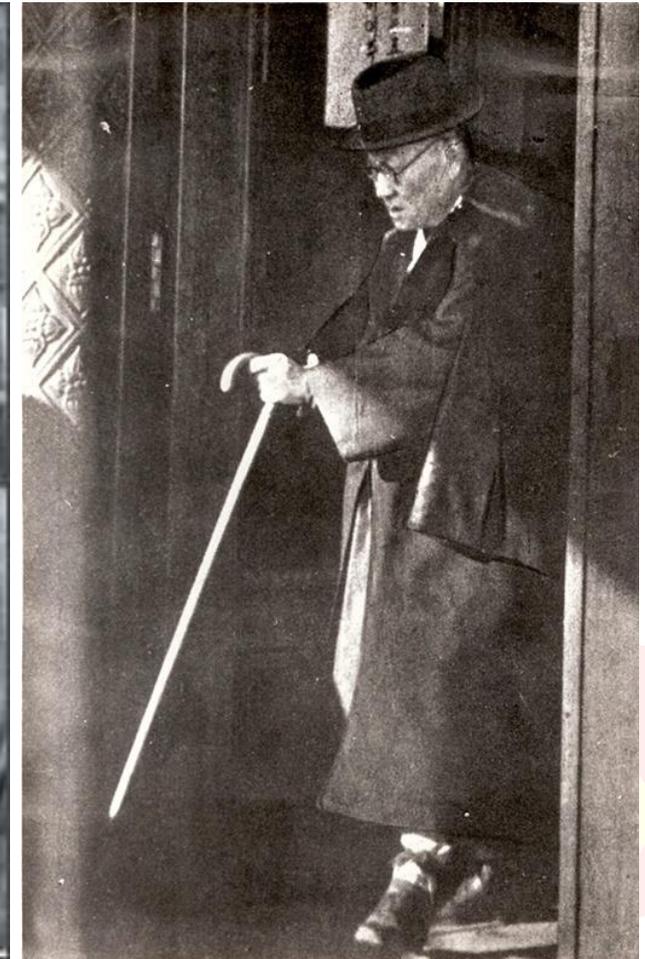
- 1890.5.8(음) 전남 담양에서 송훈과 제주 양씨의 4남으로 출생
- 1906(16) 담양 창평 영학숙에서 신학문을 배움, 김성수와 교분
- 1908(18) 일본 유학(김성수와 동행), 세이소쿠영어학교 입학
- 1910(20) 와세다대학 입학, 1911 메이지대학 법과로 전입학
- 1916(26) 김성수와 중앙학교 인수(학감), 1918 중앙학교 교장
- 1919(29) 3.1운동 주도 '민족대표 48인' 20개월 미결감 옥고
- 1921(31) 동아일보 사장(13년), 고문(4년), 주필(3년), 대표(4년)
- 1945(55) 한국민주당 수석총무, 동아일보 사장, 서거(12.30)



고하 송진우와 인촌 김성수(1906)



경성복심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6월(1926.9.8)



피습 수일 전, 동아일보사  
정문을 나서는 고하(1945.12)

# ■ '고하의 민족운동' 연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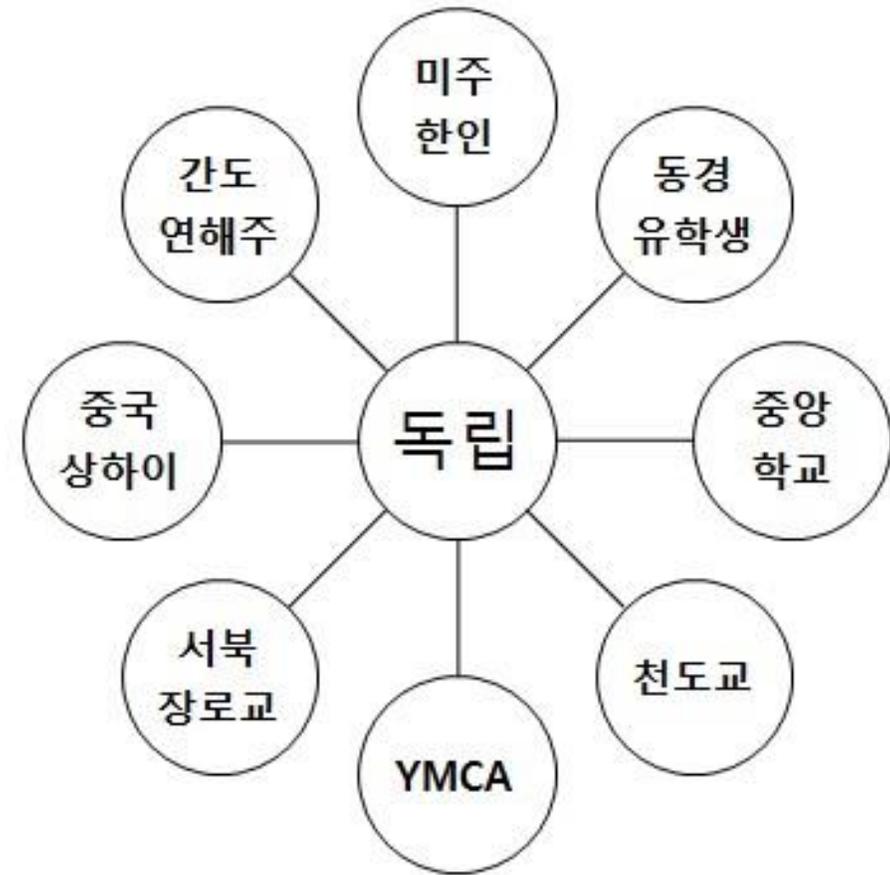
동아일보 계열로 집단 연구 - 개인 연구 소홀

인촌과 고하의 역할 오해 - '인촌'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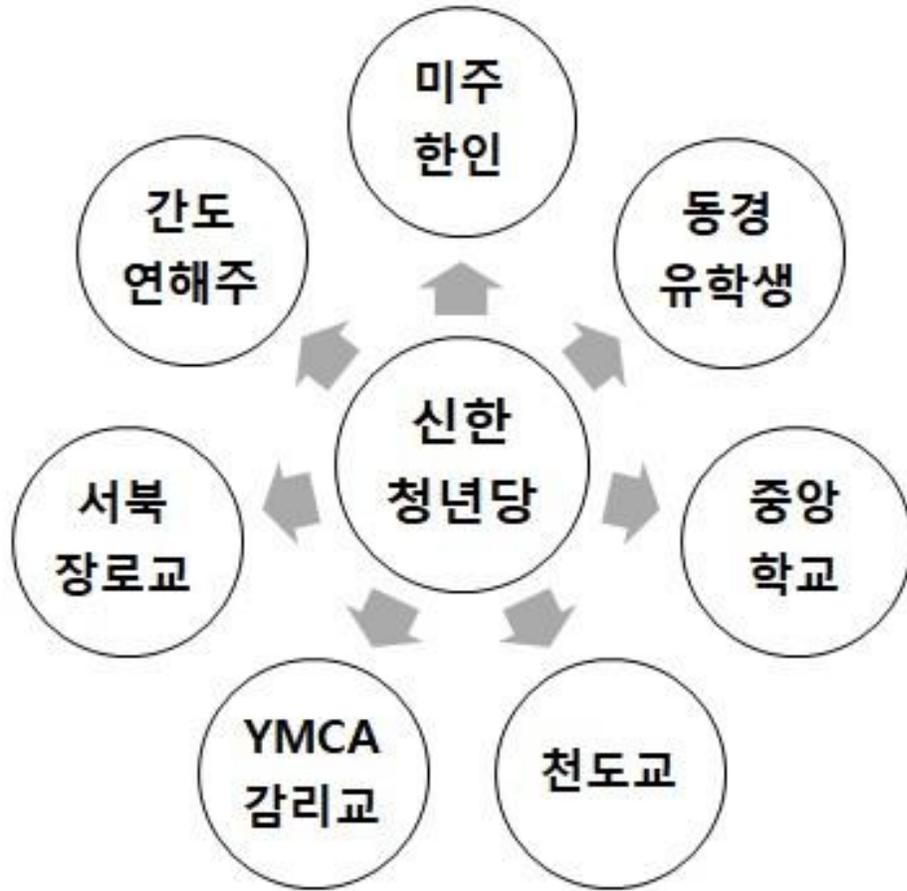
전기(傳記)에 의존 - 역사학적 실증적 연구 부족

## ■ 3.1운동의 태동

- 1919년 당시의 국내외 정세
-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 - 전후 처리문제, 윌슨 민족자결주의
- 국내 정세 - 총독부 무단정치, 고종 붕어 등으로 민심 이반
- 독립 운동 - 국내외에서 8개의 독립운동 세력이 활동



# 3.1운동의 발원지



## ■ 3.1운동의 책원지



▲ 중앙학교 4인방(김성수 최두선 송진우 현상윤)



▲ '3.1운동의 책원지'라 불리는 중앙학교 숙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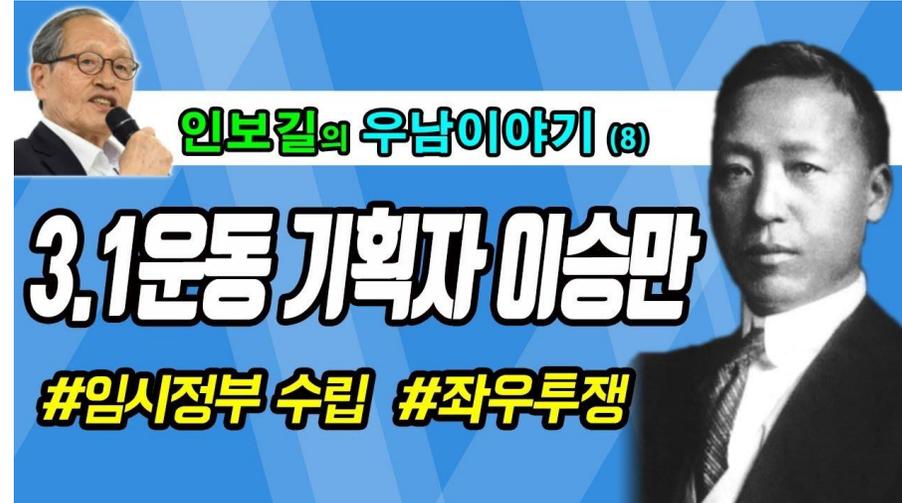
# ■ 중앙학교의 3.1운동이 외면당한 이유

1. 중앙학교는 3.1운동이 단일화를 이루는데 중심 역할을 담당함

2. '이승만 3.1운동 기획 설'과 연관된 것으로 인해 신뢰성을 상실함

3. 인촌의 친일 논쟁 -> 학계로부터 외면 당함

# ■ 이승만과 3.1운동



## [역사 증언] 이승만의 밀서(密書)가 3.1운동 일으켰다

인보길 칼럼

입력 2019-02-24 19:36 | 수정 2022-04-01 1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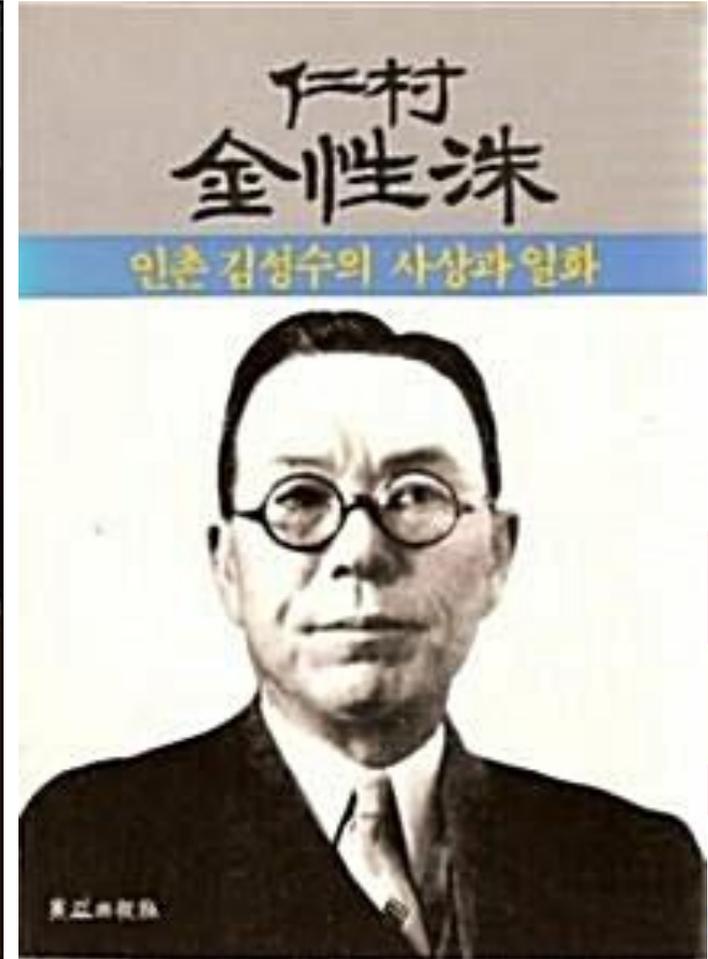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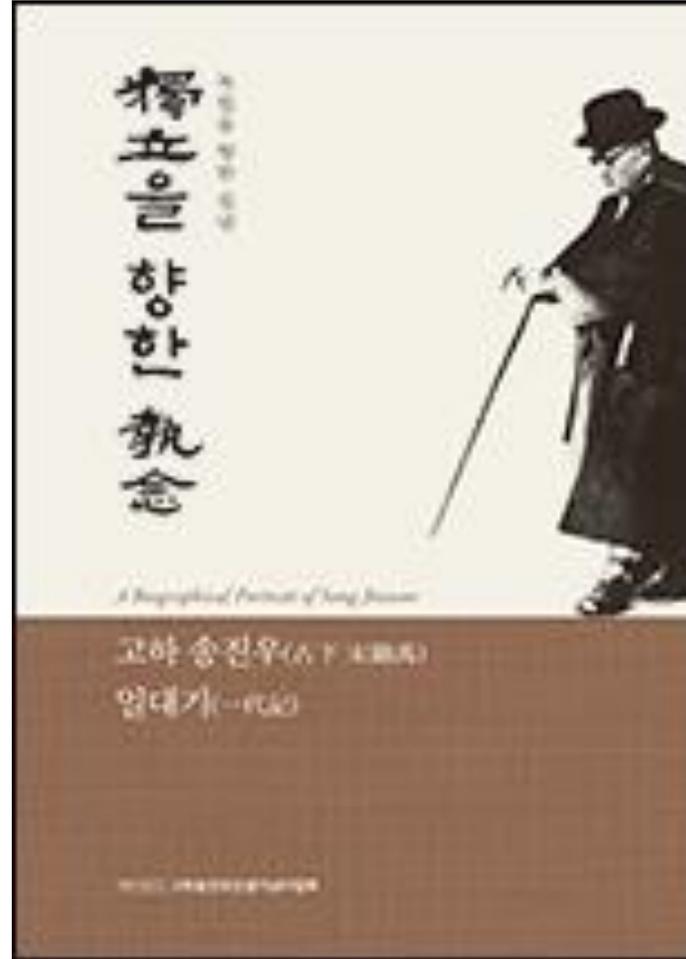


서울-상하이에 밀사..."세계에 독립의지 적극 과시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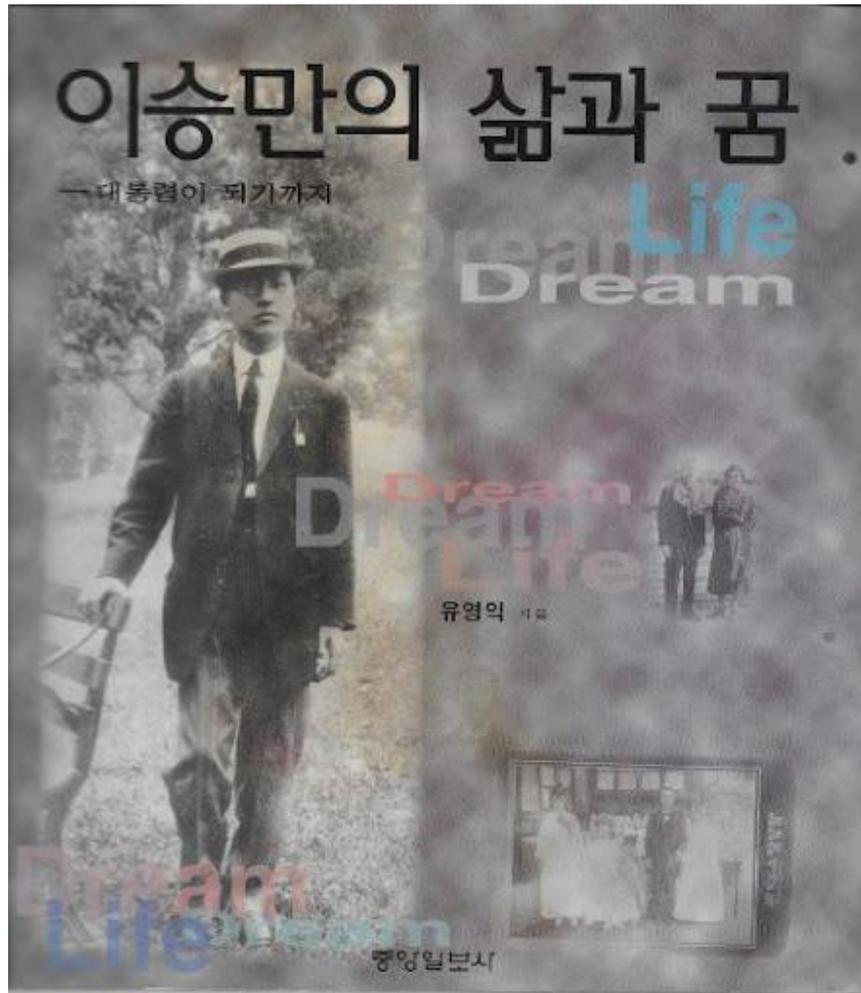
이상재, 김성수 등 개신교-천도교 종교조직 총동원 나서



# ■ 이승만 3.1운동 기획설의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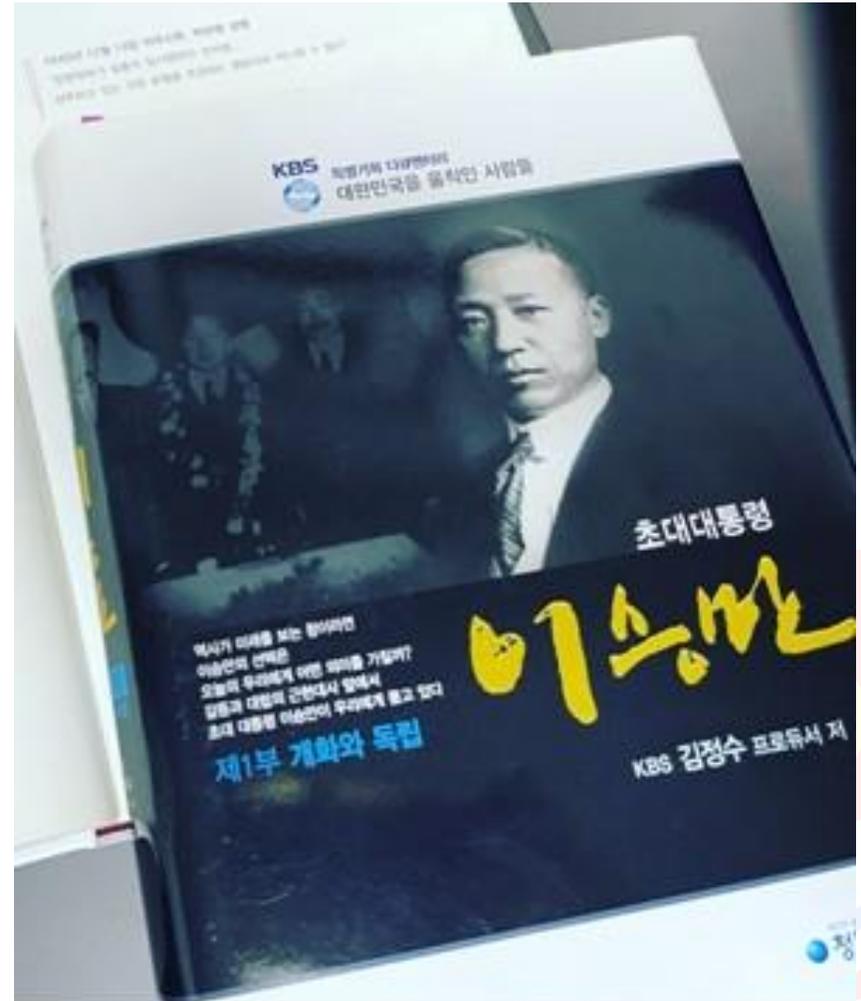


# ■ 여운홍 밀사설의 출처



◀ 기획 보도  
〈중앙일보〉

KBS TV ▶  
다큐 자료



# ■ 여운홍의 <파리강화회의 참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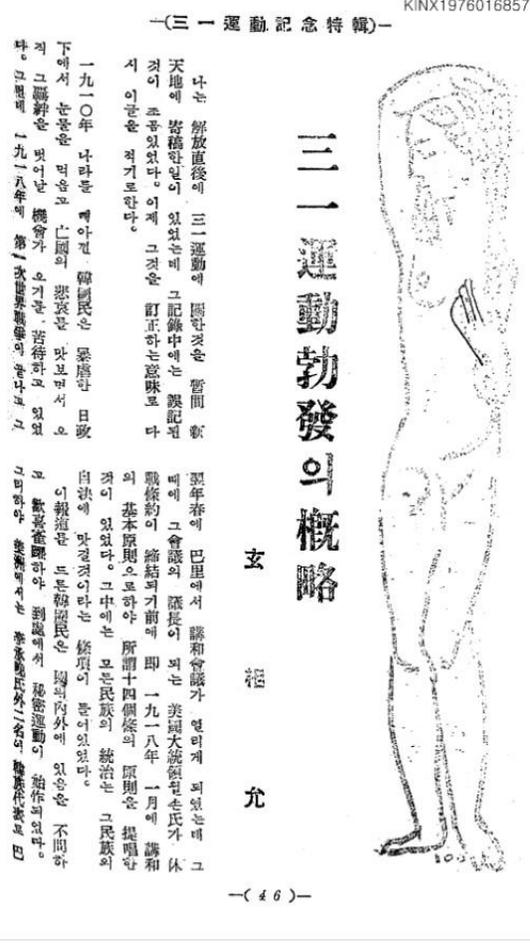
# ■ 현상윤의 3.1운동 증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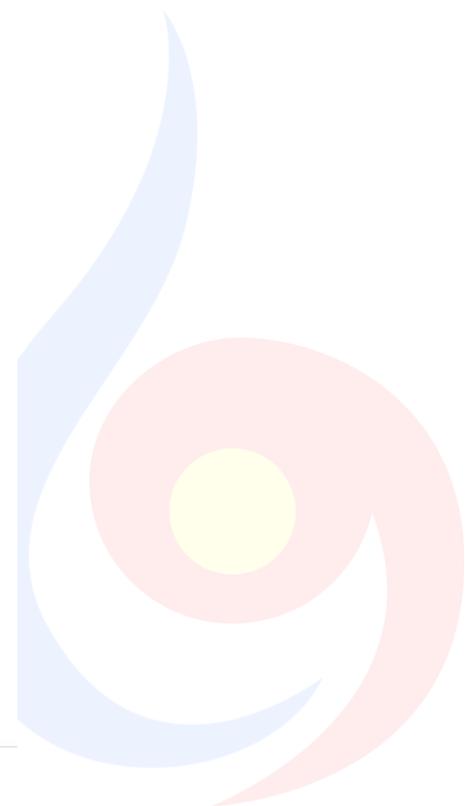
<신천지> 창간호(1923.7)



<신천지> 1946.3월호



<신천지> 1950.3월호



## ■ 3.1운동에서 고하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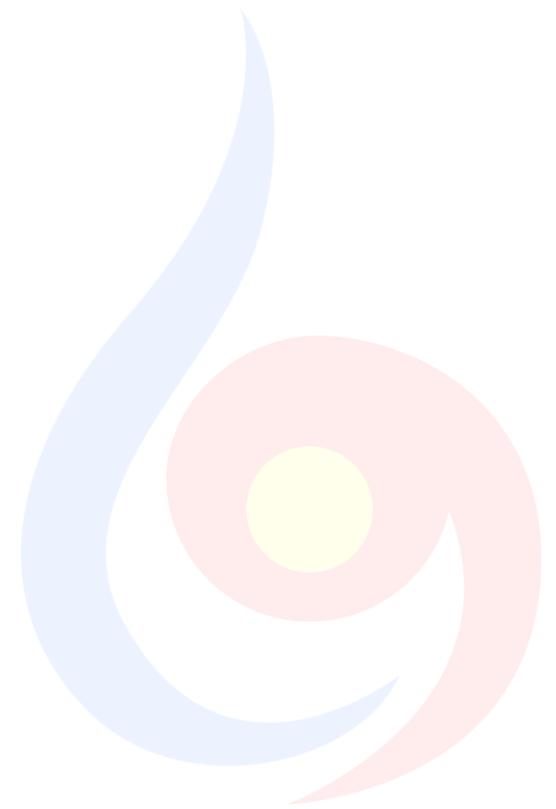
- 1918.11경부터 고하와 기당, 인촌, 최린(천도교) 등이 독립운동을 모의함

- 1919.1. 동경 유학생 송계백이 내방하여 상의 (2.8독립선언 후원)

- 1919.2. 원로(박영효 윤치호) 기독교(이승훈) 학생규합, 거사 준비

- 1919.3. '민족대표 48인'으로 투옥됨(미결 감으로 20개월 복역)

# ■ (중앙학교의) 3.1운동



# 1926년 '3.1절 축사' 필화사건



송진우  
동아일보 주필

1심 징역형 8개월  
2심 징역형 6개월  
3심 상고 기각



김철중  
동아일보 발행인 겸 편집인

1심 금고형 4개월  
2심 금고형 4개월  
3심 상고 기각



미쓰야 미야마쓰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출처 위키미디어

1924년 9월 13일~  
1926년 9월 27일  
재임



1926년 3월 6일자  
1면에 실린 알림

전날인 3월 5일자가 발행  
금지 처분을 받아 '문제 기  
사'를 삭제한 뒤 호외로 제  
작 배포했고 알렸다.

## ■ 3.1운동의 책원지이자 종착지



중앙학교 교정의 6.10만세사건 기념비



중앙학교 교정의 3.1운동 기념비

## ■ 동아일보와 송진우

· 신문 독재자: 전권(경영, 편집, 사업) 행사

· 언론경영인: 3대 사건(김동성 만국기자대회  
파견, 전국 지국 망 확대, 해외 동포 위안 회 주최)

· 동아 일보의 파수꾼: 일제 하 정간 폐간 때 수습,  
해방 후 복간 완수 - '동아 일보 공로자'

## ■ 일제강점기 언론계의 지형

<표 1> 한국인 경영 신문 발행 부수<sup>57)</sup>

	1929	1931	1933	1934
동아일보	37,802	41,293	49,947	52,383
조선일보	23,486	28,192	29,341	38,653
조선중앙일보	14,267	19,162	18,194	24,521

▲ "1920년 동시에 출발한 3대 신문 중에 동아일보만 안정되게 성장한 것은 송진우 사장의 뛰어난 경영 능력 때문이었다." - 한양학인(백관수), 「조선신문론」, 《동방평론》 제2호(1932.5).

# ■ 동아일보의 민족문화운동

단군 정신  
선양(1920)



이 충무공 유적  
보존운동(31-)



민족신문으로  
위상 정립

“문화운동가이자 독립운동가인 임병철은 이충무공 유적보존운동과 조선 민립대학 설립운동, 브나로드운동 등의 동아일보가 시행한 문화운동은 ‘열(熱)의 신문인’으로 불리던 송진우가 민족주의 본색을 발휘한 행동의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 임병철, 「송진우」, <신천지>1권1호(1946.2)

## ■ 고하와 장편소설《이순신》



“내 친구 고하는 과거 조선에 숭앙할 사람은 단군·세종대왕·이순신 3인이라고 말합니다. 고하는 날더러 3부곡으로 쓰라고 권합니다. 내가 그리려는 이순신은 이 충의(忠義)로운 인격입니다. 상상이 아닌 옛 기록에 나타난 그의 인격을 내 능력껏 구체화하는 것이 이 소설의 목적입니다.” - 동아일보 1931.5.23

# 1924년 동아일보 사태(1)

1924년 4월 퇴진한 동아일보 주요 간부와 알림



대표취체역  
송진우



취체역·전무  
신구범



상무·편집국장  
이상협



취체역  
김성수



취체역  
장두현

**謹 告**

取締役社長 宋鎮禹  
專務取締役 慎九範  
常務取締役 李相協  
取 締 役 張斗鉉  
取 締 役 金性洙

氏等이 今番事情에 依  
하야 辭任 하엿스며 其  
外 取締役은 京城에 不  
在 이기 監查役 許憲氏  
가 臨時 株主總會에서  
後任 決定 되기 사지 取  
締役의 職務를 執行 하  
게 되엿기 玆에 謹告 함

四月二十七日

株式 東亞日報社

本人等이 今般事情에 依 하야 株式  
會社 東亞日報社 取締役의 職任을  
辭하온바 就職以來 直接 間接으로  
援助 襄助를 주신 諸位의 계살가  
銘感의 微意를 表하나이다

四月十七日

李 慎 張 金 宋  
相 九 斗 性 鎮  
協 範 鉉 洙 禹



## ■ 〈東亞日報社史〉의 기록



“5월 14일 본사 임시주총에서 후임 취체역으로 이인환(승훈), 홍명희, 허헌, 윤홍열 양원모를 보선하였다. 같은 날 중역회의에서는 이승훈을 동아일보 제4대 사장으로 선출, 전무·상무도 겸하도록 하고, 이승훈이 창립한 정주 五山학교장으로 있던 홍명희를 주필 겸 편집국장에 임명하였다.”

## ■ 공산주의자들의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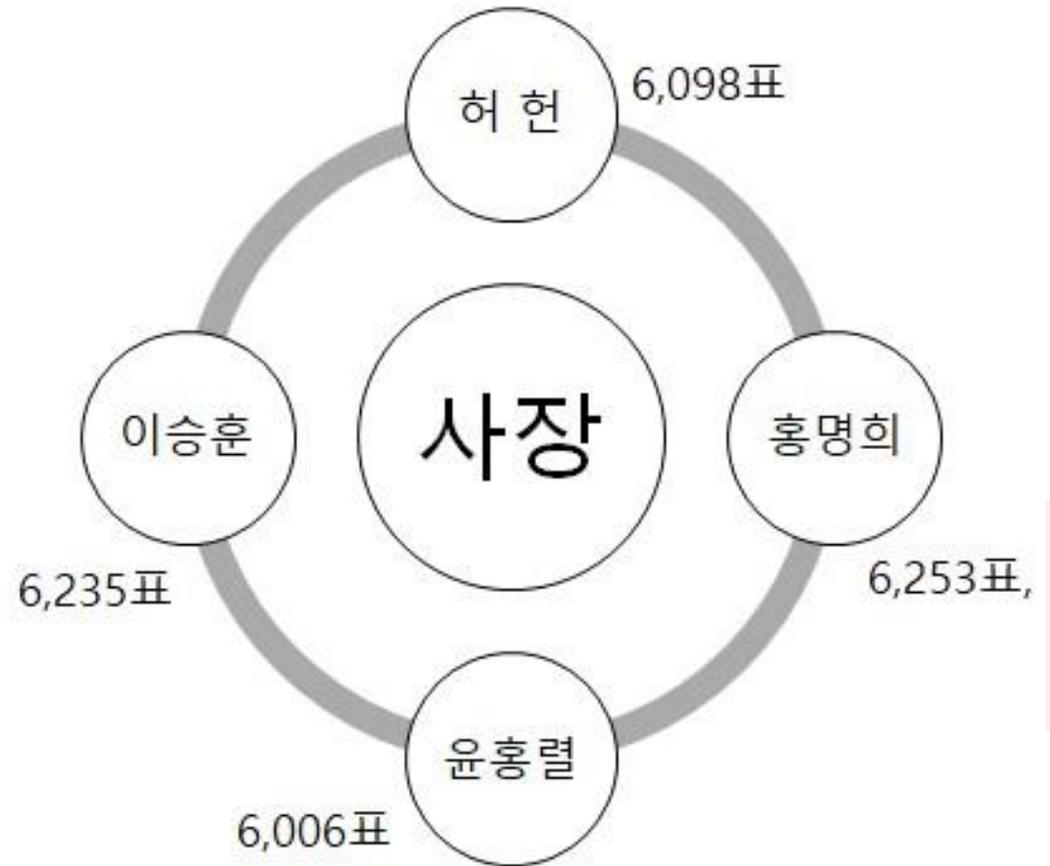
시기	사건	결과
1922. 1	코민테른 극동인민대표대회 개최	국내 공산주의 단체 발호
1922. 1	동아일보 김윤식 사회장 사건	제1차 동아일보 비매(불매)운동
1924. 1	이광수 사설 「민족적 경륜」 게재	제2차 동아일보 비매운동 선언
1924. 4	조선노동자·농민총동맹 결성식	동아일보 비매(불매)동맹 결성
1924. 5	동아일보 임시 주주총회(사장 선출)	동아일보 경영권 장악 시도

# ■ 1924년 동아일보 임시주총

김성수: 허헌

홍증식: 홍명희

송진우: 이승훈



# 1924년 동아일보 사태(2)

1924년 6월 현재 동아일보 주요 간부와 주주총회 알림



발행인·편집인  
설의식

취체역·사장  
이승훈

취체역·부사장  
장덕수(재미)

취체역  
허현



취체역  
성원경



취체역·편집국장  
홍명희



취체역  
윤홍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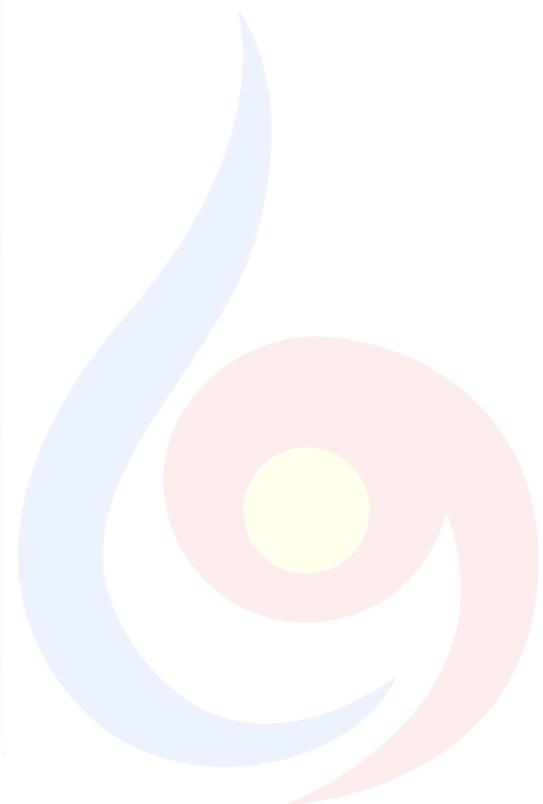
취체역  
양원모

謹告

今般臨時株主總會에서取締役을補缺選舉  
한結果左와如히選任되얏기茲에謹告함

取締役 社長 李昇  
取締役 編輯局長 洪命憲  
取締役 庶務局長兼 梁源模  
取締役 營業局長 許烈憲  
取締役 尹洪

五月十五日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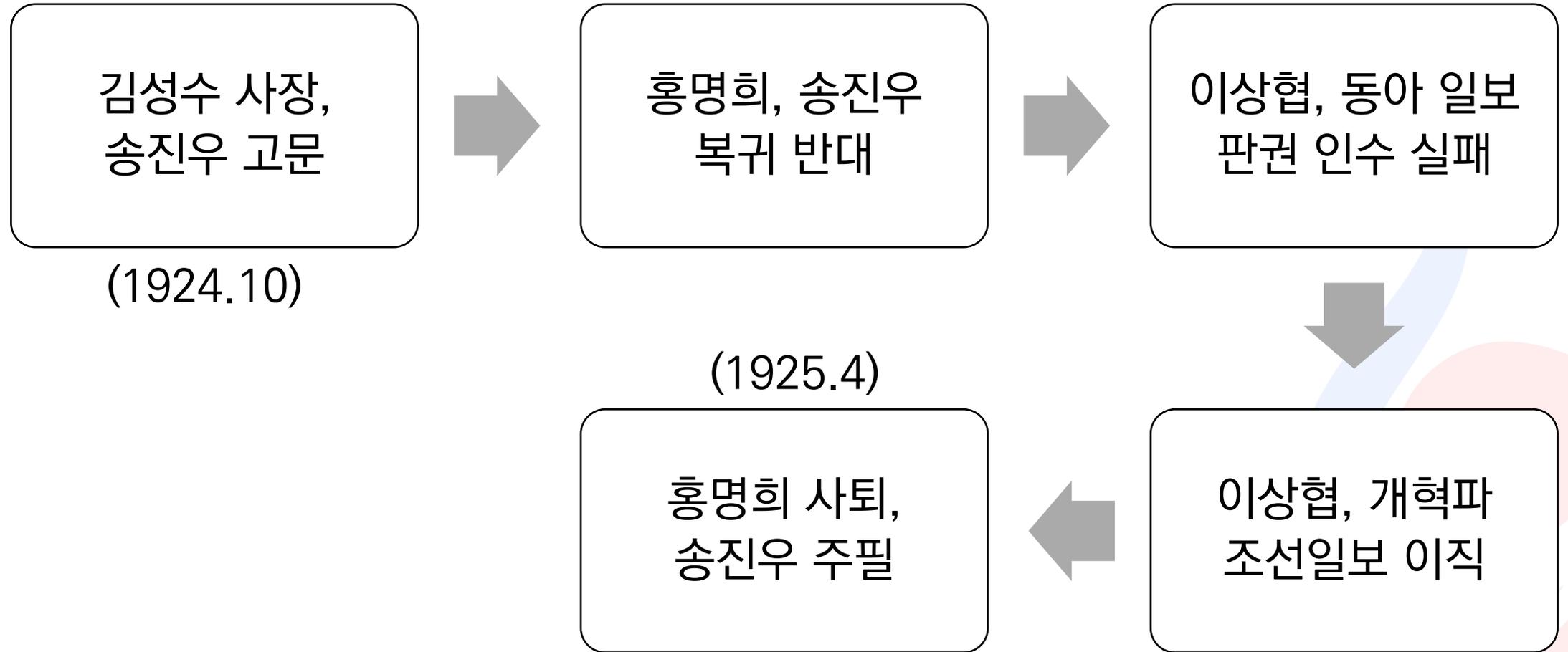


# ■ 고하와 공산주의자들의 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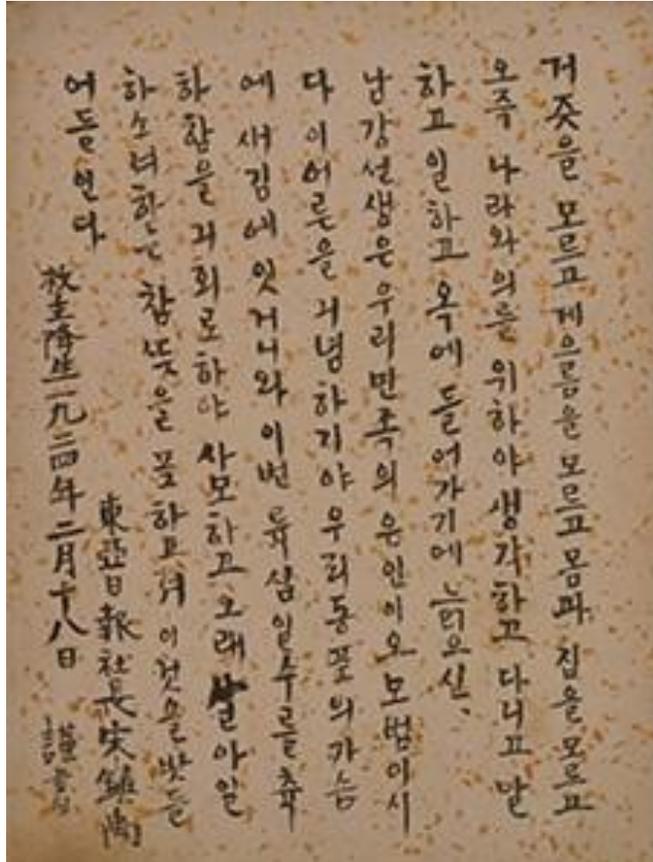
<표 2> 1924년 동아일보 경영권 투쟁에 나선 공산주의자들

성명	연령	동아일보 직책	공산주의 계열	일제강점기 주요 경력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요 경력
허헌	39	감사역 사장 대행	-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 남로당 초대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의장 김일성대학교 교장
홍명희	36	주필 편집국장	화요회	시대일보 사장 조선문화가동맹 집행위원장	내각 부수상 최고인민회의 상임부위원장
홍증식	29	영업국장 대주주	화요회	고려공산청년연합회 중앙집행위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서기국 국장, 선전부장
주종건	29	대주주	상하이파	고려공산당 간부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	사망(1935)

## ■ 이후 동아일보의 변화



# ■ 고하· 인촌· 벽초 그리고 남강



〈고하가 쓴 남강의 회갑 축사〉

“김성수, 송진우, 홍명희, 이승훈 4인은 인연은 특별하다. 김성수는 1908년 금산 군수로 부임하는 부친 흥범식을 따라온 홍명희를 군산의 객주에서 처음 만나게 된다. 이날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 이듬 해 김성수와 송진우가 일본에 유학한다. 이들은 홍명희의 주선으로 東京 錦城中學校에 편입한다. 1924년 2월 18일 이승훈이 회갑을 맞자 송진우는 당대 명사의 글과 그림을 담은 서화첩을 만들어서 홍명희를 통해 전달한다. 3개월 후 동아일보 사장 선거에서 치열한 대결을 벌인다. 1926년 10월 언론계를 떠난 홍명희는 중국 망명 길에 올라 평북 정주로 이승훈을 찾아가서 五山學校長으로 부임한다.”

# ■ ‘동아’에서 ‘조선’으로

<표 3> 동아·조선일보의 연도별 공산주의 관련 기사 건수<sup>95)</sup>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동아일보	21	22	13	10	3	8
조선일보	25	57	39	44	18	12
계	46	79	52	54	21	20

★ 1925년 이후 공산주의 기자들의 조선일보 이적으로 인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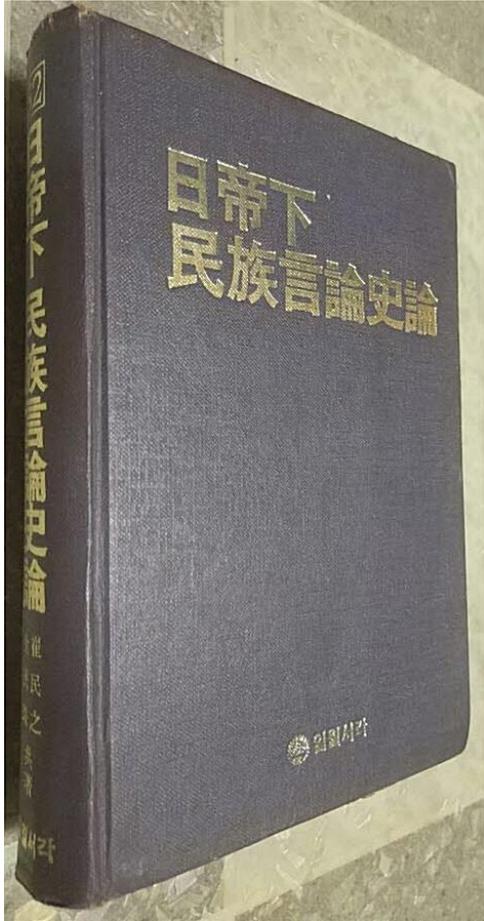
# ■ 경영권의 안정

<표 4> 동아일보의 김성수 일가 지분 변화

	주주 명	1924년 5월 이전	1927년	1929년
3형제 지분	김성수	937주 / 6.7%	2,488주 / 17.8%	2,559주 / 18.3%
	김재수	-	1,000주 / 7.1%	1,000주 / 7.1%
	김연수	-	836주 / 8.8%	1,236주 / 8.8%
	계	937주 / 6.7%	4,324주 / 33.7%	4,795주 / 34.2%
우호 지분	임정엽	-	550주 / 3.9%	550주 / 3.9%
	김원통	-	-	900주 / 6.4%
	정상호	-	-	200주 / 1.4%
	계	-	550주 / 3.9%	1,650주 / 11.7%

★ 1924년 임시주총 사태를 겪은 후 1927년부터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 ■ 1924년 동아일보 개혁운동(1)



“오늘날 자유언론실천을 요구한 130여 명의 기자들을 무더기로 무자비하게 쫓아낸 1975년 3월의 동아일보 사태를 생각할 때, 그 당시 동아 기자들의 개혁운동의 전말을 추측할 수 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동아일보 경영주는 기자를 동역자, 민중의 공器에 종사하는 사회적 公人으로 보지 않고, 신문사를 민중의 것으로 보지 않고, 사유재산으로 보고 기자를 단순한 고용인으로 본다는 사실이다.”

## ■ 1924년 동아일보 개혁운동(2)

소위 ‘1924년의 동아일보 언론개혁’은 경영진의 일방적 해고가 아니라 공산 진영과 사주 측간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었으며, 이때 패배한 일군의 소장파 기자들이 편집국장 이상협을 따라서 조선일보로 대거 이직한 사건이다. 한편 편집국장 겸 주필이 된 홍명희는 신사상연구회 구연흠 조동호 박헌영 임원근 허정숙 등을 기자로 입사시키고, 이봉수조동호를 논설반에 배치했다. 이들도 홍명희의 퇴진과 함께 퇴사했다. 따라서 ‘1924년의 동아일보 언론 개혁’이란 정의 자체가 잘못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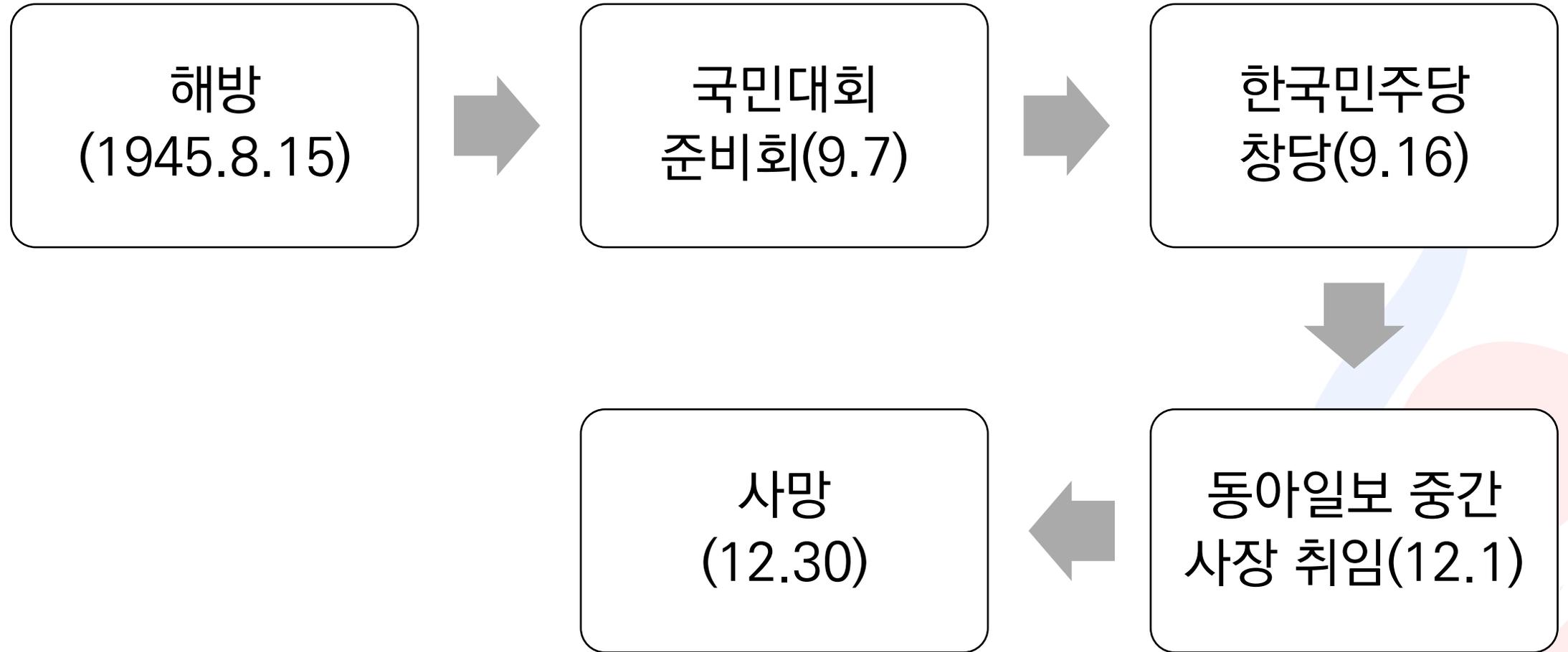
# ■ 일제강점기 송진우의 항일운동

<표 5> 송진우의 항일운동과 법적 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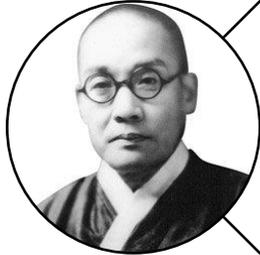
일시	내용	결과
1919. 3. .	3.1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 후 고문, 재판(미결 감)	20개월 투옥
1926. 3. 7.	3.1절 7주년 축사 게재 혐의로 인한 필화사건, 무기정간 조치	징역 6개월
1936. 8.29.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무기정간, 소환 조사	사장 사임
1940. 7. .	일본에서 귀국길에 부산에서 피검, 종로경찰서에 1개월 구금	강제 폐간

★ 송진우의 행적은 네 차례에 걸쳐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세 차례 구속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으며, 도합 27개월의 옥고를 치름.

# ■ 해방공간 127일간의 고하



# 동시대를 산 위인들이 본 고하



고하의 독립운동에 끼친 공로는 임란 시의 충무공의 공적에 비길 수 있다.(정인보)



고하가 시련 당한 것은 민족의 과거 허물을 보상하고, 장래 길을 닦는 것이다.(서재필)



고하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살아온 권化였고, 잊어서는 안될 巨木이다.(이인)

## ■ 독립운동가 고하 송진우(1)

송진우는 3.1운동의 단일화를 처음 모의한 출발점이자,  
1926년 3.1운동 필화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종착점이다.

동아 일보는 송진우가 문화운동을 통해서 민족정신을  
일깨우고 독립의지를 고취시킨 민족운동의 도구였다.

송진우는 김좌진에게 일화 1만원가량의 군자금을  
네 차례에 걸쳐 제공하였다.(이강훈 역사 증언록)

## ■ 독립운동가 고하 송진우(2)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송진우는 총독부의 강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친일단체 가입은 물론 많은 사람이 참여한 친일 논설이나 강연, 인터뷰 조차도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이처럼 송진우는 자기 주관과 소신이 확고한 태도를 보여 주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 민족지도자로 부각될 수 있었다.”

- 역사학자 윤덕영의 <고하 송진우의 생애와 활동>에서

## ■ 자유민주주의자 고하 송진우

1945.9.6 국민대회 준비회 결성(위원장) - '조선인민공화국'  
설립 선언에 대한 견제

1945.9.16 한국민주당 창당(수석총무) -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새 국가 건설

1945.12.1 동아일보重刊(사장)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반공주의 전파



고하 송진우는 '48인 민족대표'로 3.1운동을 주도하고 동아일보 사장으로 문화적 민족운동을 선도하면서 세 차례나 구속되어 27개월의 옥고를 치르면서도 끝까지 지조를 잃지 않은 독립운동가이다.

해방 직후 미군정과 협력하면서 이승만과 김구의 국내 안착을 돕고 공산주의세력의 독주를 막는데 기여했다.

그가 해방공간에서 자유민주국가 건설을 위해 헌신한 열정은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이 되었다. 따라서 고하는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의 한 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